



기독일보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www.christ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22호

“北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석방 촉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성명 발표 美·캐나다 국적 한인 선교사는 모두 석방 北, 가족서신교환 허락하고 초기 석방하길 자국민 보호, 정부 존재 이유·최우선 책임 교회, 금식기도·석방 위한 특별예배 드리자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 이하 한복협)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한복협은 “벌써 10년이 지났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세 분이 억류되어 있다”며 “이들보다 늦게 억류된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 선교사들은 이미 모두 석방되었다. 그런데 동일한 한국인인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만 아직도 억류되어 있어 생사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 온 한복협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가족과 교회, 그리고 조국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각계에 호소한다”고 했다.

한복협은 “김정욱 선교사(2013년 10월), 김국기 선교사(2014년 10월), 최춘길 선교

사(2014년 12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육간에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지 않고 몸심양면으로 돌린 그리스도인들”이라며 “순수한 신앙과 동포애로 헌신적 사역을 감당하다 체포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오늘까지 억류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도 가입한 국제인권 규약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남북한 당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들의 석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을 향해 “세 분 선교사의 생사확인과 가족서신교환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허락하기를 간청한다”며 “또한 한국교회대표단 면회 허용과 나이 및 건강상태, 억류기간 10년을 고려해 조기석방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복협은 “이분들의 선교사역은 북한 당국을 위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북한 동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었음을 적극 고려해 주기를 간구한다”며 “억류선교사 석방은 북한 당국의 위상 제고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및 캐나다 국적자들은 자국 정부가 앞장서 노력한 끝에 모두 석방되었다. 자국민 보호는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우선적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유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석방을 위한 역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북한 당국과의 협상을 비롯한

최선의 정책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 사안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설정하고, 유엔 및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세계교회를 향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핵문제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사람을 모른체 하지 않으신다(시 69:33).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북한의 새 길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교회의 협력은 북한 기독교 부흥의 새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복협은 “우리는 한국교회를 향해 뜨거운 가슴으로 제안한다”며 “북한억류 선교사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몸으로

순종하며 동포애를 가지고 북중점경 지역에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에 앞장서던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합심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억류 선교사 석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주 한 기 이상 금식기도를 하고 △교회 주보에 선교사 억류 사실과 송환촉구기도 내용을 정기적으로 실고, △북한억류 선교사 석방과 북핵문제를 위한 특별예배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한복협은 “세계교회 및 국제사회와의 유익적 협력과 우리 정부 및 북한 당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이취 북한억류 선교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자”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화해와 평화, 북핵문제를 위한 단초가 제공될 기도한다”고 했다. ▶관련기사2면 김진영 기자

퀴어축제 맞서는 거룩한방파제 국민대회, 올해 20만 명 참석 목표

6월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릴 예정

올해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맞서는 제 10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오는 6월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측은 12일 오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올해 국민대회와 관련해 논의했다. 참석자 규모는 20만 명을 목표로 잡았다.

이 자리엔 대회장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새로남교회)를 비롯해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 주요섭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김병찬 목사(예장 한영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매년 서울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날, 이를 반대하기 위해 열려왔다. 퀴어축제 측은 앞서 올해 퀴어퍼레이드를 6월 1일로 예고했다. 당초 서울광장을 쓰고자 했지만 이곳에서 다른 행사가 열려 쓸 수 없게 됐다.

준비위원장인 이용희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며 “새 국회가 시작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 사무총장인 홍호수 목사가 1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실행위에서 올해 국민대회 개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고 기자



지난해 서울시의회 앞 도로 일대에서 열렸던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기독일보 DB

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세기총) 등이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거룩한방파제 측은 본대회에 앞서 4월과 5월 특별기도회도 개최한다. 대회장인 오정호 목사를 비롯해 박한수 목사, 이용희 교수, 김원평 교수(공동준비위원장, 한동대 석좌), 조영길 변호사(전문위원장)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앞서 예배에서 설교한 오정호 목사는 “우리 당대와 미래세대를 살려내기 위해 주님 편에 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이것이 빛의 자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관련기사2면 김진영 기자

“코메니우스 구원론, 믿음·소망·사랑의 통전적 시각”

한국신학아카데미, 2024년 봄학기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신학아카데미(원장 김군진 박사)가 2024년 봄학기 학술세미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라는 주제로 4월 13일 5월 18일, 서울 안양동 한국신학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세미나에선 정일용 박사(전 총신대 총장, 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 소장)가 ‘코메니우스의 구원론: 믿음, 소망, 사랑과 이신칭의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17세기 유럽에서 활동했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신학자였던 코메니우스(J. A. Comenius)는 몰트만(J. Moltmann) 이전의 회망의 신학자로, 그리고 현대신학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정 박사는 “코메니우스는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단순히 믿음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연관된 통전적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믿음, 소망, 사랑을 중심에 둔 코메니우스의 구원론은 전인적이며, 윤리적이며, 영성과 관계된 전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기독교 구원의 실천적인

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메니우스는 칭의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향한 우리 신앙의 움직이기 출발점으로 이해하며, 칭의와 온전함(성화)은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처럼 불가분리의 관계로 예측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그것은 믿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사랑의 움직임 안에서 갈망했던 언약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근본도대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완전함을 향한 칭의와 성화(영화)의 통전은 코메니우스의 교육 선교론에서도 확인된다(골:1:28)”며 “우리는 여기서 코메니우스의 구원론은 칭의론에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 사이도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정 박사는 “코메니우스의 구원론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통전적인 의미를 지닌 기독교 구원 신앙의 본질”이라며 “믿음은 구원의 출발이며, 동시에 그 믿음은 소망과 사랑과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의 삶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신앙의 원동력이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꾼의 사명을 수행하는 실천적인

신앙의 역동성”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한국교회는 믿음과 행함의 분리 문제의 극복뿐만 아니라, 코메니우스 구원론의 올바른 이해로 그간 한국교회가 상실한 신앙의 원동력과 역동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주환 교수(한신대 역사신학과)와 박재순 박사(서울사상연구소 소장)가 정 박사의 발표를 논평했다.

또 오는 5월 18일에 있을 두 번째 세미나에선 오성종 박사(전 칼빈대 교수)가 발제하고, 김경재 박사(한신대 명예교수)와 서정환 목사(한국기독교교장대회)가 논평한다. 김진영 기자

KWMA, 2024년 자선 학회 심포지움 개최 ▶ 7면

김남수 “찬양은 보고, 듣고, 노래하는 것” ▶ 22면

강남에서 20분대! 과천 옆 호텔식 실버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롯데타워, 청계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모락산, 백운호수, 백운호수역(가칭) 신철 예정,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롯데쇼핑몰(예정), 청계C

PRUGIO

경의왕(백운호수역) - 인덕원-과천-강남

호텔형 생활 서비스와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

- 365일 식사 서비스
- 메디컬 케어 서비스
- 하우스 키팅 서비스
- 문화·체협 클래스

3,500여평 초대형 커뮤니티

총 536세대 1577-5052

설치자 겸 임대인 M+ 엠디엠플러스, 대리사무소인사 KAIT 한국자산신탁, 사공 대우건설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한·일교회의 협력 방안은?

한복협, 12일 월례회 개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 이하 한복협)가 최근 한국중앙교회(담임 임석순 목사)에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한·일교회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4월 12일 조찬기도회 및 주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기도회는 문창선 선교사(선교위원장, 위대국제선교회 대표)의 사회로 이노우에 요시미 선생(일본복음주의연맹, 이하 JEA)이 '일본 선교를 위해, 유관지 목사(감사, 북녘교회연구원장, 용산감리교회 원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으며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합심 통성기도를 했다. 이어 미즈구치 이사오 선생(일본복음주의연맹)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에베소서 2: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사오 선생은 "제가 경험한 한일교류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 1990년 저는 일본의 크리스천 학생(KGK)의 관리자를 맡고 있었다. KGK는 한국의 IVF(KIVF)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두 단체의 졸업생 모임 캠프가 있었다. 당시 저는 한국 방문팀 대표자로 참가했다. 캠프에서 저는 일본이 20세기 전반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많은 잔혹한 행위를 한 역사를 언급하고 사죄했다. 사실 그 졸업생 캠프는 1년 전에도 한국에서 진행되었는데, 그때에도 일본의

KGK 대표가 한일 관계에 대한 과거를 언급하고 사죄한 바가 있다. 그런데 2년 연속 이 집회에 참석했던 한 한국인 참가자가 '작년과 똑같이 하시네요. 아무리 사과하시더라도 행동없이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까'라고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다가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한반도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조선을 배우기로 하고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에 저는 KIVF 형제들과 주님 안에서 좋은 교제를 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한국방문은 20년 만에 오는 것이지만, 1990년대 당시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다"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막힌 담이 생긴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본문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한다. 두 민족은 서로 차별하여 담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 곧 적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사'에서 '막힌 담'은 서로 적의를 가진으로서 쌓이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부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는 십자가에 의한 것이다.



미즈구치 이사오 선생(일본복음주의연맹, 오른쪽)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에베소서 2: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복협



이시다 토시노리 선생(일본복음주의연맹, 오른쪽)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한·일교회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복협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하셨다. 차별은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깊어지고 적의를 낳는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닌 공통된 것에 마음을 둔다면 막힌 담은 허물어 지게 된다"고 했다.

이사오 선생은 "본문 16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한 사람은 막힌 담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 하나가 된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의해 둘이 하나가 된다'의 진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일본 선교를 왔던 몇몇 한국인 선교사 친구들이 있다. 그중 한 사람과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해온 교제에 대해 간증하고자 한다. 30년 전 도쿄에서 빌리 그레이엄 대회가 열렸을 때 저는 그 대회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섬겼다. 그때 저는 1명의 한국인 선교사를 알게 되었다. 그는 일본을 싫어했으나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따라 일본 선교를 위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다"며 "이후 30년 동안 그는 일본인 대학생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저에게 전화로 조언을 구하며 제 발언에 겸손히 귀 기울여 주었다. 또한, 저도 그가 섬기는 교회에 봉사하러 찾아가 있으며 그의 목회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그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에서의 복음 선교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했다.

끝으로 이사오 선생은 "10여 년 전 그가 속한 선교단체의 리더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JEA와의 교제도 끊겼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몇몇 분들과 참관인으로

JEA의 총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작년에 그가 속한 선교단체는 다시 한번 JEA 재가입이 승인되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그와의 만남과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됨을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며 "향후 JEA와 KEF와의 교류를 계속 이어가며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측 단체의 이념을 이해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직분을 가진 분들 간의 교류에서 그치지 않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모든 적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체험한 자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이러진 발표회에서 이시다 토시노리 선생(일본복음주의연맹)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한·일교회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시노리 선생은 "한국과 일본의 선교 협력의 역사를 보면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제8차 한일복음공동정기협의회가 오사카에서 개최되었으며 제9차 정기협의회가 2005년 한국 분당 할렐루야 커뮤니티 교회에서 개최됐다. 이후 2008년 '개신교 선교 150주년을 위한 일본 교회와 한국교회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으며 2009년 CCK와 JAE 간 선교협력각서를 서명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해지원을 하기도 했다. 2013년

한일 선교협력각서가 해지 되었다가 10년 후 JCE7을 통해 교류가 재개되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일본의 개신교회는 목회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이 적으며 목사가 정년퇴직 후 그 자리를 이어서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며 "정년퇴직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목회에서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와 달리 목회자 본인 스스로 사직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목회자 감소 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목회자의 고령화로 인한 현상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겸직과 같이 여러 교회에서 동시에 사역하는 '겸임목회'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교회의 약 절반 이상은 교회학교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교회학교에 참가하고 있는 다음세대는 '목회자의 자녀' 뿐이거나 모태 신앙인 아이들로만 이뤄져 있으므로 성립되지 않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회학교가 감소하는 이유는 저출산, 약화된 차안, 음친교회 사건 이후 종교에 대한 공포심과 경계심, 다음세대를 매혹하는 미디어,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일본지진 협력 이후 1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을 극복하고 양국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문화와 생활양식을 초월한 복음 선교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며 "각 집회, 신학 세미나, 청소년학생여성 등의 모임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신학생, 신학대학교 교수, 목회자 간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각 교단과 교회, 각 단체 간의 협력관계 체결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 시켜나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당신을 변화시키는 움직임
The Kia EV

구분별 1588 1100 | 24시간 고객센터 200-2000 | www.kia.com

“반기독교문화, 성혁명 등에 맞설 시민활동가 양성”

제4기 시민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4월 25일~5월 23일 매주 목요일

반기독교문화, PC주의, 젠다성혁명, 문화막시즘 등에 맞설 시민활동가를 양성하는 제4기 아카데미가 오는 25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제자광성교회(담임 박한수 목사)에서 진행된다. 이 아카데미는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약칭 시활본)가 주최하고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가독시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예수철천군사, 바른문화연대가 주관한다. 또 동반연과 진평연, 에스더기도운동, 제자광성교회도 후원한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6주간 제1기 아카데미가 진행됐고, 같은 해 9월 14일(아

간반)과 19일(주)간반)부터 6주간 제2기, 그리고 올해 2월 1일부터 5주간 진행된 제3기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70여 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시활본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일어나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지켜내기 위해 신앙과 성품을 겸비한 실력 있고 준비된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사로는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김원평 교수(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주요섭 대표(반동성애가독 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

표), 홍영태 대표(국민주권행동 공동상임 대표·진실역사교육연구회),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이현영 대표(예수철천군사·국민연대)가 참여한다.

첫날은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의 개회예배 설교 후 김원평 교수와 주요섭 대표가 강의하며, 2주 차엔 이용희 교수와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계속 이어진다. 시활본은 "현장에서 열심히 파켓팅을 해온 활동가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시민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는 해를 거듭할수록 앞장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민활동가의 의미와 중요성 및 사명감을 깨닫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퀴어축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 못 쓴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12일 결정

서울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없게 됐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전원 합의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서울도서관이 주관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과 6월 1일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퍼레이드는 6월 1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같은 날짜에 사용 신고를 한

단체가 두 곳 더 있었다. 결국 세 개 단체 측이 지난달 21일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협의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퀴어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민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위는 이미 다른 행사가 열리기로 확정된 6월 1일 을 제외하고 5월 31일 사용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다. 결국 시민위가 이날 서울도서관 측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퀴어축제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른 장소

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퀴어축제 측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의 '제25회 서울퀴어퍼레이드(SQP) 경력자원 활동가 모집' 공지에서 퍼레이드가 오는 6월 1일 서울 시내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서울 시내 어디인지는 공지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시민위는 퀴어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청소년 청년 회복콘서트'를 허가했다. 이에 퀴어축제 측은 서울 을지로2가 일대에서 열렸다. 당시 이에 맞서는 '동함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서울시의회 앞 도로 일대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복음통일 일꾼 양성하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지원해야”

바이어하우스 아카데미,
12일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 심포지움 개최

바이어하우스 아카데미(회장 이동주 박사)가 최근 대한기독교여자절제연합회관에서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제8회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효숙 박사(국민대)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과 대안교육의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이 각종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북한 출생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중국 등 제3국 출신 탈북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출신 탈북청소년들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진학 시 등록금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은 대학 재학 중 장학금 지원(200만 원) 1번만 지원받는다”고 했다.

신 박사는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정원의 특례입학, 정부 차원의 직업취업 훈련 및 병역의무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

으나,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정원 내 특례입학으로 남한 학생들과 동일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직업취업 훈련 및 병역의무 면제 혜택은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들과 중국 등 제3국 출신 탈북청소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교육부 산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은 총 1,769명으로 이 중 1,364명(77.1%)이 중국 등 제3국 출신이다. 어머니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체류 도중 북송당하지 않으려 중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심양섭 박사(남북사랑학교 교장)는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철상가상으로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은 언어습득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 가족의 해체 등을 경험한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며 “북한 출신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각종 대입 전형, 병역 면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제3국 출신 탈북청소년은 웬만해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합격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사 대입 입시에 성공해도 탈북청소년들은 총체적으로 학교생활에서 위기를 겪는다. 이대학보 올해 2월 보도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대학 중도 포기율은 일반 남한 대학생에 비해 4년제 대학 평균 75.3%로 기록됐다. 첫 번째 사유로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해서

28.1%를 차지했다”고 했다.

현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11곳이 탈북청소년들의 남한 적응을 돕고 있다. 이중 9곳이 기독교계 학교다. 심양섭 박사가 교장으로 재임 중인 남북사랑학교도 예정합동 축 열방성교회가 세운 학교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졸업생 421명을 배출했고, 이 중 올해 3월 기준 취업 268명, 학업 124명, 기타(군복무 등) 29명이다. 이외에도 반석학교(사랑의교회, 예정합동), 장대현학교(장대현교회, 예정고신), 하늘꿈학교(선한목자교회·일산광

림교회, 기독교대안감리회) 등이 있다.

초교과 인가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여명학교의 올해 수입예산은 25억 6964만원으로 통일부에서 8억 1200만원, 교육부에서 17억 5764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미인가학교인 남북사랑학교의 올해 정부 지원금은 2억 8680만원으로 남북하나재단에서 1억 4000만원, 교육청에서 1억 4680만원을 받는다.

심양섭 박사는 “탈북청소년 학교의 재정형편은 빈약한 부익부”라며 “만성적 재정난으로 미인가 탈북청소년 학교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심 박사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이혜타산에 사로잡힌 세상의 논리와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인 통일을 이뤄내고자 탈북청소년을 중심으로 통일세대 육성에 투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비전은 바로 탈북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을 복음통일의 일꾼으로 양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

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탈북민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들은 탈북 청소년들을 상대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바로 공부와 복음”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들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송신복 박사(성비전교회 담임)가 ‘탈북민 대안학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앞서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유관지 목사(북녘교회연구원)는 “코로나19팬데믹을 전후로 중국의 감시가 더욱 가혹해져 중국의 탈북 루트가 협소해진 탓에 탈북민 숫자가 급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학생 사이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0% 대로 내려갔다”며 “그러나 새벽이 깊을수록 여명이 온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한 초월적인 역사를 이뤄낼 것이라고 믿자. 독일 통일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뤄진 초월적 사건이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기감 경기연회 개최… “한국교회, 십자가 지고 부활 소망하자”

11~12일 꿈의교회서… 첫날 개회예배 및 각종 보고 이어져

기독교대안감리회 제35회 경기연회(감독 박장규 목사)가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간 꿈의교회(담임 김학중 목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연회 첫째 날엔 개회예배 및 각종 보고가 있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제13대 감독 홍성국 목사는 “영광의 신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 자기의 의와 업적을 자랑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 하면서 번영을 추구한다”며 “그러나 십자가 신학은 오직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고난과 약함, 낮아짐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십자가 신학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실패와 약함이 복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은 일시적인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약속하셨다”며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낮다. 왜냐하면 번영주의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번영을 쫓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을 추구하는 십자가 신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투터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이고, 이유는 자신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며 “한국교회 초창기엔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양반이나 노비나 모두 동등한 존재라며 봉건제의 결과인 신분제 타파를 외쳤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그 뒤에 나타날 부활의 소망을 견지하는 기독교 복음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다.

아울러 경기연회 비전교회 국민연금 지원위원회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에 따르면, 경기연회는 지난해 5월부터 당해 국민연금 최저 수납액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을 매일 지방회와 절반씩 공동으



제35회 경기연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로 비전교회 114곳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감 법원의 회에선 교역자를 상대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경기연회 전체 교회의 약 53%인 400여 개 교회가 비전교회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이 위원회가 정한 연간 결산액 4천만 원 미만 등 각종 기준에 부합하는 181개 교회 중 신청을 받고 지원에 들어간 교회는 114개 교회(올해 2월 기준)다.

위원장 황창진 목사는 “감리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현장교회 목회자에게 지원하고자 시작했다”고 했다.

희망교회세우기운동본부(본부장 이명환 목사) 보고도 이어졌다. 이는 연 2회 컨퍼런스 개최 등 각종 훈련을 작은교회에 제공해, 이들이 강소형 교회로 거듭나도록 돕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또 매달 선교비 30만 원 지원과 매월 멘토-멘티 교회 간 소모임을 개최해 멘티 교회의 특장점을 살려 교회 부흥을 위한 각종 조언을 들려주고 있다.

또한 교역자 품행통과 심사 및 성역 30주년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다.

노형구 기자

신앙전수 모범가정 시상 등 예장 통합 제108회기 주요 사업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가 지난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회의 제108회기 주요 예정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통합 측은 우선 오는 16일과 25일 각각 전북노회 회의록과 경안노회 회의록을 유류 제8·9호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5일 안동선교부 선교사포역을 총회 사적 제47호로, 6월 27일 두길교회 구예배당 사적 제48호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9일에는 선교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5월 7일(서부), 14일(수도권), 21일(동부권), 23일(중부권) 지역별 자립대상교회 선교대회를 갖는다.

이 밖에 4월 25일 제108회기 교회와 사회포럼-고독사와 교회의 역할, 5월 3일 제1회 총회 신앙전수 모범가정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또 5월 15일 제108회기 목사고시(응시생 997명, 장로

회신학대학교), 5월 16일-6월 12일 제73회기 총회파송선교사 훈련이 예정돼 있다.

또 5월 16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및 문용동 전도사 순직기념예배, 5월 23일 생명문명·생명목회순례 10년 정책 토론회, 6월 10-12일 제16회 목회자유가족협의회 총회 및 수련회(여수성광교회), 6월 11일 제108회기 한국교회사 포럼이 있다.

아울러 6월 13일 제108회기 이주민선교 정책세미나, 6월 17-19일 총회 신학대학원 신입생 통합수련회, 6월 20-21일 한일연합 이단대책세미나(대구제일교회), 6월 20일 6.25 평화통일기도회, 7월 4일 총회 전도부흥운동 시상식, 9월 9-12일 해외한인교회 목회자대회(새벽월드자연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단의 제109회 정기총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영 기자

전세계 럭셔리 휴양 컬렉션 오직,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아너스 회원에게만

훽날리는 바람과 수많은 별이 수놓는 대자연의 압도감, 당신에게만 허락된 그곳에서 가장 경이로운 휴양을 선사합니다.

Sanctuary for the senses
BANYAN TREE
HAEUNDAE BUSAN

| 아너스 회원 글로벌 혜택 |
아너스 회원이 되어 전 세계 32개국 109개 호텔&리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 컬렉션을 누리십시오.

아너스 회원 모집 중 1899.3318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얀트리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

미주합동총회 서부노회, 정종섭 신임노회장 선출



새 노회장으로 선출된 정종섭 목사(새영교회, 사진 오른쪽) © 주최 측 제공



새롭게 선출된 임원진 기념촬영. © 주최 측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서부노회 98회 정기노회가 지난 9일 뉴욕 소재 새영교회(담임 정종섭 목사)에서 열렸다. 정종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

에서는 노회장 안영호 목사가 '바울의 고별선교'를(사도행전 20장 17-25절) 통해 목회자의 신앙고백을 권면했다. 이후 이종희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개회예배를 마쳤다

2부에는 회무절차를 통해 신임노회장으로 선출된 정종섭 목사를 비롯한 임원을 새롭게 선출하고, 기교회에서 올라온 장로증원 청원서등 회무를 처리했다. 이어

정종섭 목사가 에레미야 52장 1절-11절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며 오늘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노회원들에게 권면했다. 김민선 기자

“봄 꽃놀이 무료로 보내드려요!”

센터메디컬그룹 가입환자 대상 었지만 신선한 공기를 쐬며 나들이를 나갔다는 것에 시니어들은 만족하였다. 또한 피코꽃을 많이 보지 못한 대신 유명한 영화 촬영지인 'Vasquez Rocks'를 둘러서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이미 일일관광 꽃놀이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다른 메디컬그룹에서는 주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다가오는 4월 16일과 18일은 칼스베드로 꽃놀이를 떠나게된다. 이곳은 이미 피코꽃과 그밖의 봄 꽃들이 활짝 폈다는 소식에 관광을 예약한 가입환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16일 화요일은 LA에서 칼스베드로 출발하며 4월 18일 목요일은 오렌지카운티에서 칼스베드로 가는 상품이다. 이 무료 꽃놀이 관광은 센터메디컬그룹 가입환자만 가능하며 더 자세한 문의와 예약은 (714)904-1701번으로 하던 된다. 김민선 기자

재미동남부장애인체육회, 전미주 장애인체전 설명회 가져

재미동남부 장애인체육회(회장 천경태)가 지난 7일(주일) 오후 2시 제네레이션교회 주빌리 사역팀(팀장 박화연 집사)을 방문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6월 14-15일 양일간 매릴랜드에서 열리는 제2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박화연 집사는 "주빌리 장애인팀은 근래 테니스 종목에 시작하여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한 나뉠을 갖게 되었다. 주빌리의 장애인 친구들 중에는 테니스 외에도 골프, 육상, 콘솔, 한국등의 종목 출전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미주 장애인체전 참가설명회를 마치고, ©주최 측 제공

천경태 회장은 "매릴랜드에서 열리는 제2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은 매년 열리는 한국의 전국 장애인체전이나 스페셜올림픽과 유사한 대회로서 9개의 정식종목(수영, 태권도, 골프, 육상, 탁구, 볼링, 한국, 테니스, 보치아) 외에 시범종목(프리즈비 날리기, 콘솔, 축구공 멀리차기, 축구 5인제, 스크린 사격, 슷린 그리고 가족종목으로 나누며 경기는 대부분은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종목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할 수 있는 유 나이퍼이드 경기로 구분이 된다. 특히 참가 선수는 2개 종목의 최대 6개 세부 경기를 참여할 수 있어서 여느 대회와 달리 많은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경기가

아틀란타 일원 교회 중 가장 역동적인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제네레이션 교회의 류계환 목사는 "다음 주일 새로운 처소에서 열리는 교회의 오프하우스 초청예배를 전교인이 함께 준비하며 특별히 주빌리 및 이와 같은 장애인사역을 위해 교회차원에서 최선을 도우미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원을 보낸다"고 기도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함께 참석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김승영 이사장, 김희진, 표창선, 김성호 이사)는 4월 21일(주일) 오후 5시 동남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아틀란타 일원의 일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장애인들을 돕기 위하여 후원의 밤으로 모여 특히 장애인들이 사회

적인 편견과 어려움을 딛고 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랑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틀란타 일원에는 매 주일 장애인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 프라미스교회, 슈가로프교회, 연합장로교회, 소명교회, 제네레이션교회 외에도 주중에 주로 성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일 사역을 감당하

고 있는 밀알선교단, 원 미니스트리, 더 숲, 사인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동남부 장애인체육회는 "동남부 6개주에 산재한 각 한인회 산하에 속한 장애인들이 대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전미주장애인체전에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동남부 지역의 대표로 참여하여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자원과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앤더슨 김 기자



행사 기념촬영. ©단체 측 제공

중앙교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동서양 음악회' 앞뒤

에틀레타중앙교회(담임 한병철 목사)가 주관하는 다켓 카운티 공무원 초청 음악회 '제8회 동서양 음악회'가 오는 20일 오후 6시에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교회가 한인사회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취지로 2015년에 시작되어 카운티의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소방관, 경찰관, 보안관, 응급요원 등이 참석한다. 교회는 이 자리를 통해 카운티 내 6개 부서에게 각 1천불의 기금을 기부할 계획이다. 앤더슨 김 기자

프라미스교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초청 말씀집회 연다

한국 만나교회 담임 김병삼 목사 초청 말씀집회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된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성품을 주제로 하는 이번 집회는 26일 오후 8시, 27일 오후 7시 30분, 28일 오전 8시 30분과 11시에

열린다. 금요일과 토요일 집회는 유은성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인도한다.

또 27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는 목회 자세미나로 새날장로교회에서 모임이 있다. 앤더슨 김 기자

타코마새생명교회 김도현 찬양 사역자 초청 간증 집회

타코마새생명교회(담임 임영희 목사)는 오는 4월 24일 오후 7시, 김도현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한다.

김도현 찬양 사역자는 "성령이 오셨네, 예수 예수, '살렘' 등 크리스천들에게 친숙한 곡들을 작곡했다. 김도현 찬양 사역자는 이날 자신의 대표곡들과 함께 신앙 고백을 나눌 예정이다. 문의 : 253) 535-6207 주소 : 9702 EAST B STREET, TACOMA, WA, 98445 앤더슨 김 기자

살고 싶은 집 자이!

은평자이 더 스타 주상복합

2천만원으로 입주시까지 + 선착순 특별 혜택

-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중
- ☑ 26년 5월 입주예정
- ☑ 전매 가능
-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 풀옵션 무상제공

소형주택 : 전용 49㎡ | ▶ 분양물류용 : 공동주택 (소형주택), 오피스텔 ▶ 분양규모 : 연면적 42,954.14㎡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9-100 외 2필지 (19-107, 19-108)

문의 1544-6605

* 본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격려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외도면은 계약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옥탑부, 주동 형태, 저층 마감, 문구, 상호 형태 및 기타 촉촉 디자인, 테라스, 발코니, 외부 세제, 난간 색상, 벽체 마감, 주민공동시설 외관, 외부 로고, 세부 식재, 포장 계획, 조경 디자인, 용역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시설(계약금, 주변 건물 현황, 신, 조명, 외부 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 미비한 소비자의 피해보상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적용됩니다.

6 새 주택

6 새 주택

PCA 서북노회, 신임 노회장에 강대이 목사 추대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서 제63회 봄 정기 노회 개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담임 하원식 목사)에서 열린 PCA(미국장로교회) 서북노회 제63회 정기 봄 노회에서 신임 노회장으로 강대이 목사(마라나타 비전교회)가 추대됐다.

또 부노회장으로 이경렬 목사(그레이트 밸리교회), 서기에 김현진 목사(윌렛츠

릭 하나교회), 부서기로 장성은 목사(주님 의교회)를 선출했다.

이번 노회에서는 김기운 목사가 노회 전임으로 서북노회 회원이 되었으며, 남부 시찰회에 속해 있는 남가주살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 전비서 전도사가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전체 면접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기도 했다.

노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 예배에는 강대이 목사가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위하여(사사기 21:16-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대이 목사는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돕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한편 PCA 서북노회는 캘리포니아 주, 오리건 주, 워싱턴 주, 알래스카 주, 하와이 주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싱턴 주에는 시애틀 새소망교회(성남규 목사)와 뉴비전교회(정우영 목사), 올림피아 한빛장로교회(박춘식 목사), 풀만 한인장로교회(이강훈 목사), 시애틀 J 플러스교회(양성길 목사), 이규현 목사(메이슨 인터내셔널 대학교-대학원)가 PCA 서북노회에 가입되어 있다.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서 개최된 PCA 서북노회 제63회 봄 정기 노회 ©주최 측 제공

김민선 기자

시애틀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로 결단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청년 수련회 가져



시애틀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청년 수련회 ©교회 측 제공

시애틀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담임 정찬길 목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데이빗 가바 선교사를 강사로 케스케이드 캠프 컨퍼런스 센터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대학생들과 청년 직장인, 결혼한 영가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수련회에서 데이빗 가바 선교사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것을 도전했다.

데이빗 가바 선교사는 편안하고 안락한 세속적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 된 삶을 살라고 촉구하며, 말씀과 더불어 믿

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소개했다.

수련회는 전체 집회 외에도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선택 강의로 이뤄져 큰 호응을 받았다. 선택 강의는 성경적 데이팅, 재정관리, 상처 치유 등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이

성 교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기가 가장 높았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음을 회개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영 기자

안디옥장로교회, 안수집사·권사 임직식 갖고 18명 직분자 세워

안디옥장로교회(담임 조은하 목사)는 최근 임직식을 갖고 안수집사 7명, 권사 5명, 명예 권사 6명 등 모두 18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안디옥장로교회 안수집사·권사·명예권사 임직식의 모습 ©안디옥장로교회

조은하 목사는 직분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정치기로서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꾼 된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은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임직식은 온양석 장로의 기도에도 이어 정종택 목사(KPCA 서북노회장)가 "직분자의 거룩한 호흡(행 7: 54-6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의 삶과 순교의 신앙을 소개하면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함을 가지고 설교에 이어 권면과 축사는 배명현 목사(시애틀영락교회)와 최요환 목사(시애틀우리교회)가 각각 전했다. 안디옥 위정 목사는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닮아 오래 참고 항상 용서의 심 찬양팀이 축가로 자리를 빛냈다. 임직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시애틀 비전교회 5차 새가족 뱅킷



시애틀 비전교회 5차 새가족 뱅킷 기념촬영. ©교회 측 제공

시애틀 비전교회(담임 고창훈 목사)는 지난 8일, 5차 새가족 뱅킷을 열고 교회의 새로운 일원이 된 가족들을 환영했다.

시애틀 비전교회의 새가족 뱅킷은 4주 과정의 새가족반을 마친 수료자들을 축하하는 자리로, 이날 뱅킷에는 8기와 9기 새가족반을 마친 16명의 수료자들이 참석했다.

고창훈 담임 목사와 교회 성도들은 수료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고 독려했다.

시애틀 비전교회의 새가족반을 마친 수료자들이 교회에 정착할 확률은 97%

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새가족들은 교회와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시애틀비전교회는 신구약 성경통독반을 비롯해 다양한 양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

김민선 기자

조이플 선교회 '아프리카 우물 기부' 제4회 자선 음악회 연다

오는 5월 19일 오후 5시, 타코마 새생명장로교회

여명의 조이플 선교합창 단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이플 선교회는 국내외를 비롯한 전 세계에 복음전파와 선교를 위해 매년 8만여 달러가 넘게 선교후원하고 있다.

조이플 선교합창단은 그동안 3회에 걸친 자선음악회를 통해 후원금 전액을 전쟁과 자연 재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을 돌보며 질병으로 투병하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삶 속에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해 왔다.

2023년도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

라이나와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를 비롯해 타코마 제네럴 병원 소아 어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세 개 기관에 자선음악회 수익금 2만5천달러 전액을 후원했다.

이번 자선음악회에도 후원금 전액을 아프리카에 우물 기부를 위해 물한그릇 선교회(원종승 선교사)와 소망소사이어티(대표 유분자)에 후원할 예정이다.

장현자 목사는 "은혜로운 찬양과 오케스트라단원들의 연주로 감동이 있는 음악회에 지역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했다.

김민선 기자



Good Neighbors effect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당신의 손길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난 33년간 전 세계 좋은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Good Neighbors Effect 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세상에 좋은 변화 만들기

美대학생 복음집회 여전히 성황... 애즈베리 부흥 불씨 이어가

지난해 미국의 대학에서 시작된 대학생 부흥 집회 운동이 여전히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10일 보도했다.

대학생 복음화 단체인 '유나이티드 US'(Unite US)는 2023년 9월 12일, 앨라배마주 오번대학교(Auburn University)에서 열린 부흥 집회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서 대규모 학생 모임을 조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열린 행사에서 약 300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앨라배마 대학교(University of Alabama)에서 약 260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다.

지난 주, 유나이티드 US는 조지아 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인근의 스테이튼 콜리세움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당시 현장에는 전통적인 세례 장소가 부족하여, 약 150명이 픽업트럭의 짐칸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 US는 오는 5월 1일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톰슨 볼링 아레나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집회는 인근의 테네시 대학교(University of Tennessee)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체의 설립자인 토냐 프레웨트(Tonya Prewett)는 CP의 인터뷰에서 "이 운동은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을 멘토링하고 그들의 고통, 불안 및 우울에 대해 듣고 난 후에 주신 비전에서 시작

되었다"고 말했다. 프레웨트는 작년부터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 무대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며 "지역 목회자들과 사역 지도자들을 만나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지도자들이 비전에 동참했고 약 6주 만에 유나이티드 오번(Unite Auburn)이 열렸다. 행사에는 약 5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고, 그날 밤 약 200명이 세례를 받았다"면서 "그 이후로 우리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대학교를 방문했다"고 했다.

프레웨트는 수백 명의 세례에 대해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라며 "학생들은 진리와 소망에 굶주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나이티드 US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학생들에 대한 후속 관리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 조지아 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례를 받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얻을 수 있었다"면서 "각 학생에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역의 모든 교회와 캠퍼스 사역 목록을 제공할 것이다. 지역 교회 또는 사역과의 연결을 요청한 학생들을 위해 사역자에 그들의 이름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이 이 행사에서 놀라운 간증을 공유했다면서 "자살을 고민하던 학생들이 기



2024년 4월 3일 미국 조지아주 아테네의 스테이튼 콜리세움에서 열린 '유나이티드 US'(Unite US) 복음 집회에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Tonya Prewett



유나이티드 US 복음 집회에서 학생들이 픽업트럭에서 세례를 받았다. ©Tonya Prewett

줄만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놀라운 결과를 내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2월 8일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애즈베리 대학교(Asbury University)에서 시작된 부흥회 현장에 참석한 경험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대학 강당은 채플 수업이 끝난 뒤 약 30명의 학생들이 남아 기도를 시작했고, 이후 2주간 24시간 내내 자발적인 예배가 이어졌다. 이 소식은 즉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며,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포클루다는 "집으로 돌아온 직후 프레웨트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는 오번대학교에 대학생들을 모이게 하려는 인도하심을 느꼈다"며 "단 6주 만에 그녀는 농구 경기장을 확보하고, 패션 뮤직(Passion Music)이 예배를 이끌도록 확정했으며, 나와 제니 앨런을 설교자로 초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오번 집회가 "서둘러 신앙을 고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이 아닌, 200가지의 서로 다른 복음 중심의 대화였다"라며 "학생들은 자신이 믿는지를 천천히 확인했고, 자정이 넘어서야 세례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움직임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애즈베리에서부터 오번, 그리고 패션, 플로리다 주립대까지 대학생들은 일요일에 교회나 종교 의식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부흥을 잉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 김 기자

교회 떠나는 미국 Z세대, 여성이 남성 추월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미국의 Z세대 여성이 조직화된 종교를 남성보다 더 많이 떠났으며, 무교인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생활조사센터(Survey Center on American Life)는 작년에 미국 성인 5459명으로부터 수집한 응답을 바탕으로 종교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지난 주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 Z세대는 기성세대와 대조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조직화된 종교를 떠난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은 조직화된 종교를 떠난 베이비붐 세대(57%), X세대(55%) 및 밀레니얼 세대(53%)의 다수이지만, Z세대(57%)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이 연구는 Z세대 여성들의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교회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여성(53%)과 50~64세 여성(57%)의 과반수는 "대부분의 교회와 종교 단체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특히 30~49세 여성(64%)과 18~29세 여성(65%)은 교회가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훨씬 우세했다.

50세에서 64세 사이의 남성 중 49%가 교회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30~49세 남성(55%)도 교회가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하게 대한다는 데 수긍했으며, 18~29세 남성 중 54%, 65세 이상 남성 중 51%가 그렇다고 답했다.

Z세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직화된 종교를 더 많이 떠난 동시에, 무교인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추월한 첫 세대이다. Z세대 여성의 39%는 자신을 무교라고 답한 반면, 남성은 34%가 같은 범주에 속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남성 중 37%가 자신을 무교라고 답한 반면, 밀레니얼 여성은 34%로 약간 낮았다. X세대에서는 여성(27%)이 남성(23%)보다 무교를 선택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베이비 붐 세대에서는 남성(23%)이 여성(14%)보다 무교라고 밝힌 비율이 현저히 더 높았다.

이 연구는 젊은 여성들이 조직화된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추가적인 요인들을 나열한다. 그중 한 가지 요인은 "Z세대 여성 중 61%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밝혔으며, 이는 이전 세대 여성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라는 데 있다.

미국의 공공종교연구소(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는 청년들이 조직화된 종교를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교회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대우"를 꼽았다. 보고서는 또한 2022년 일반 사회 조사에 포함된 연구에서 Z세대 여성의 54%가 "낙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종교성 감소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젊은 여성들의 종교적 참여의 감소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독특한 도전을 나타낸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지역사회 건설과 예배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라며 "이 헌신적인 노동력이 없다면 많은 교회가 교인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는 또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종교적 가치와 믿음을 물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란 미국인들은 신앙적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많이 신뢰하며, 혼합 신앙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신앙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며 "이중 어떤 것도 미국의 예배 시설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 젊은 여성들 중 상당수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경고했다. 유진 김 기자

美대학체육협회, 성전환 여성 선수 출전 금지 예고

미국 대학 간 운동 경기를 주관하는 전미대학간체육협회(NAIA)가 생물학적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性)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성 부문 출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NAIA는 올해 8월 1일 새 학기 개강과 함께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며,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학생"만 여성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요법을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은 더는 여자부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비록 NAIA가 241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체이지만, 미국 전체 대학체육을 관장하는 거대 NCAA가 NAIA의 이번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NCAA 역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자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결과에 대한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달 전현직 여자 선수 16명이 NCAA를 상대로 "트랜스젠더 선수 리아 토마스의 출전 허용으로 여성 평등권 침해 및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2년 3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수영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맨 좌측)가 자유형에서 우승을 차지해 논란이 일어났다. ©FOX

토마스는 2022년 미국대학선수권 수영에서 생물학적 남성이었지만 호르몬 요법을 통해 여자부에 출전, 우승을 차지해 공정성 시비를 일으켰다. 이에 국제수영연맹은 이듬해 "12세 이전 성전환 수술 받은 이들과 여자부 출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 토마스 역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여성부 대회 출전을 제차 시도 중이다. 이나래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안연차)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까지다 일부비용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기독교 시대에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신학 방향은?”

KWMA, 12일 2024년 자선학회 심포지움 개최
‘세계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신학의 모색’ 다뤄

세계 기독교와 세계 선교 지형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 선교국과 피선교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북음이 전해지는 방향도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흐름이 아닌, 동반자 관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전파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러한 세계기독교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교회의 자선학과 선교신학을 논의하고, 현지 교회와의 동반자 선교 방안 등을 나누는 심포지움이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작년 제8차 NCOWE(엔코워, 국가별 세계선교전략회의)에서 서구교회의 약화와 세계기독교 형성이라는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선교의 방향을 전환하고, 제3세계 교회와의 선교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오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는 비서구교회 리더들을 초청해 비서구 선교운동을 위한 COALA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대국 KWMA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말씀에서 “이번 자선학회 포럼은 크리스텐덤 선교와는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다중심적(polycentric) 선교를 한국교회에 더욱 이해하고 일반화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비서구교회들과 같이 가려는 한국선교의 몸부림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동진 박사, 제3세계 선교시대 열어”〉
조동진 박사 선교신학의 재발견 제3세계 선교신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 박기호 풀리신학대학원 원로교수(전 아시아선교협의회 회장, 동서선교연구개발센터 명예회장)는 조동진 박사의 출생과 성장, 교육, 신앙과 선교신학적 기초가 형성된 과정 등을 전하고, 이미 반세기 전부터 비서구세계 선교세력들과의 동반자 선교를 외치며 한국적 선교신학은 물론 제3세계 선교시대를 개척해 온 조 박사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조동진 박사의 선교신학은 1961년 국제선교협력기구, 1973년 밤아시아 선교지도자 컨설턴트, 1975년 아시아선교협의회(AMA) 창립과 기독교 선교에 관한 서울선언, 1989년 제3세계선교협의회(TWMA) 창립 등을 통해 제3세계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날 박 교수는 조동진 박사가 아시

아 교회들과의 선교 협력을 시작하기 전, 1968년부터 1969년까지 먼저 서구선교에 동반자 관계를 제안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했던 일화들도 소개했다. 조 박사는 당시 새롭게 일어나는 아시아 선교단체의 지도력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 OMF 국제본부에 한국 선교단체들의 선교사 훈련에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미국 뉴욕의 C&M 선교본부를 찾아가 베트남에 새로 들어가기 시작한 한국 선교사들과의 협력선교를 제안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세계장로회신교회 본부에서도 조 박사의 선교 동반자 관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리노이주 퀴텐의 TEAM선교회 본부에서도 기대와 달리 조 박사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 박사는 이 일 후 1970년부터 아시아 12개국을 다니며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을 만났고, 아시아 선교단체들이 상호 동반자 선교관계를 맺는데 찬성하면서 아시아 교회와의 선교 협력에 본격화 되었다. 또 아시아선교협의회(AMA) 대회에 초청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선교 대표들도 본국에 돌아가 선교단체 협의회를 창립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세 대륙 간 선교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박 교수는 또한 조동진 박사의 선교신학의 특징을 △하나님 중심의 선교신학 △교의신학과 성서신학에 기초한 선교신학 △성육신적 선교신학 △말씀 선포 위주의 선교신학 △중립론적 선교신학 △자민족 복음화 우선주의 선교신학 △쌍방주의 선교신학 △협력선교신학 △이동 선교신학 △미전도선교신학 △산파 선교학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근대 선교운동에서 윌리엄 케리가 해안선교시대,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선교 시대, 도날드 맥가브란과 캐머런 타운센드가 감추인 족속과 간과된 족속들을 위한 선교시대를 열었다면, 조동진 박사는 제3세계 선교시대를 여신 분”이라며 조 박사의 선교신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찬자로 나선 이명석 아신대학교 교수는 “조동진 박사의 비서구 선교운동은 단순히 비서구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교회의 주도적인 패러다임 내에도 선교적 변화가 와야만 한다고 강조한다”며 “비서구교회는 세계 선교에 뒤늦게 동참했지만, 서로가 동등



맨 왼쪽부터 권성찬 대표, 안건상 교수, 황병배 교수, 안교성 교수, 이명석 교수, 박기호 교수, 최형근 교수

한 자격으로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비서구 교회는 서구교회가 먼저 수고한 몫이 있음을 공감하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적 동반자 선교신학의 7가지 모델 제안〉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신학과 세계 기독교(학)를 주제로 발제한 안교성 장로회신학대 은퇴·객원교수는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신학과 의의, 세계기독교(학)의 선교적 의의를 중심으로 현지인 중심의 한국적 동반자 선교신학의 모색과 전망,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안교성 교수는 “현지인 중심주의”에 대해 “20세기 후반 이후 기독교에서 현지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실천이 중요하다”며 “현지인 중심주의를 다룰 때는 먼저 자선학과 정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는 비서구교회가 모교회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비서구교회가 서구교회적 비서구교회를 재생산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며 “서구교회가 서구교회적 비서구교회를 생산하고, 서구교회적 비서구교회가 다시 서구교회적 비서구교회를 생산하는데, 비서구교회가 서구교회의 잘못을 대항하고 재생산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자 선교신학에 대해서는 ‘예규메니칼 진영에서 시작되어, 1947년 캐나다 퀴트비대회가 ‘순종 속의 동역 관계’라는 주제로 개최됐고, 반세기가 넘는 기간이 지나 로잔운동이 2010년 케이프타운 대화에서 동반자 선교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라며 “동반자 선교신학에서 선교 사역이란 ‘실천에서 시작하지 않고 선교 주제인 ‘교회에서 시작하여, 교회 일차에서 세계 선교의 동반자 관계를 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신학”에서는 “동반자 관계 의식을 심는 일부터 시작해야 동반자 선교 체질 개선이 가능하

다. 이를 위해 개척 선교 단계가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20세기 말 개척 선교를 한 몽골의 사례를 소개했다.

안 교수는 “새로운 동반자 선교는 동반자 쌍방 중심적 동반자 선교이고, 기독교 전 영역, 나아가 세상 전 영역을 망라한 동반자 선교요, 다양성을 포함한 다면적, 다차적, 다차원적 동반자 선교”라며 한국적 동반자 선교신학을 위한 7가지 모델로 ①동반자 다면화 모델 ②동반자의 다차화 모델 ③동반자의 다차원화 모델 ④동반자 관계의 심화 모델 ⑤동반자 관계의 합리화 모델, 혹은 책무 모델 ⑥선교 사역의 자선교회화 모델 ⑦선교 사역의 선교 영역 확산 모델, 혹은 다방면화 모델을 제시했다. 또 각 모델을 동반자 모델(①~③모델), 동반자 관계 모델(④~⑤), 동반자 선교 사역 모델(⑥~⑦)로 분류하고, 이 모델이 활용되길 기대했다.

논찬자로 나선 황병배 협성대학교 교수는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신학과 세계기독교(학)의 주제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의 당위성을 확고히 했으며, 선교지의 급변하는 상황에 응답하는 한국적 동반자 선교신학의 구체적인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선교신학에서 선교적 신학으로 방향 전환 필요해”〉

“제3세계 교회의 선교신학”을 주제로 발제한 안건상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는 발제에 앞서 주최 측에서 주제로 제시해 온 ‘제3세계’라는 용어에 대해 “과거 냉전 시대 서구 중심의 세계 이해에서 형성된 정치적 용어다. 또 아프리카 대륙 내에도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제3세계가 비서구권이라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와 태평양을 하나의 범주로 잡고 교회와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건상 교수는 “세계교회의 지형이 바뀌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교회 축이 이



이날 심포지움이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동했고, 세계선교 중심축도 이동하여 이제 서구교회도, 한국교회도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현장 사람을 초 대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를 움직인다는 태도,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려는 태도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와 선교사는 굉장히 제한된 서구선교사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거의 궤를 같이한 교회의 전통들이 존재한다”며 “일반화 하긴 힘들지만, 우리보다 훨씬 신실하고 공동체적이고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교회 전통들이 지상에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건상 교수는 이날 “선교신학의 논의만으로는 선교를 바꿀 수 없고, 신학이 선교적이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과업”이라며 “선교 수행을 위해 기존 선교학, 선교신학을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신학 자체를 선교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교적 신학은 오랜 기간 교회의 신학 방식이었다”라며 “초대 공의회 당시 신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아타나시우스 등의 신학자는 아프리카 신학자이고, AD 1,000년경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교회 중심이 있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신학은 선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선교, 신학, 교회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신학을 실천하는 교회였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신학은 상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다면서 “상황화에 대한 연구는 모든 문화권의 신학을 위한 필수 과업”이라고 말했다. 안건상 교수는 “상황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규범적(normative)이기보다 기술적(descriptive)이어야 한다. 하지만 관찰하고 기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역의 상황 신학을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에 비추어 비평적

로 평가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서 형성된 신학들이 서로 대화와 상호 작용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건상 교수는 지역적 상황화와 자선학회의 사례로 그가 협력 선교사로 있었던 에티오피아 정교회(EOTC, Ethiopian Orthodox Tewahido Church)를 소개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EOTC는 거의 2,000년 동안 존재해 오며 원시 전통, 히브리-유대교 전통, 사도적 전통, 시리아 전통, 이집트 콥트 전통 등 다른 전통과 영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전통을 발전시켰다. 또한 혼합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으나, 창조적 대화 능력, 민족주의(nationalism)라는 두드러진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논찬자로 나선 권성찬 GMF 대표는 “상황신학이 마치 공통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철학에서 사용하는 상호문화철학 등의 개념과 유사한 상황 신학으로 흐를 경우, 대화로 문제를 봉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디에서 바라보는가(상황)를 인식하되, 어디를 바라보는가(복음과 본질)에 대한 논의가 무시되면 안 된다. 본질을 주장하다 한 문화의 관점을 유일한 신학으로 고착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상황을 주장하다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같이 여겨져서도 안 된다”며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응답 및 전체 논찬을 맡은 최형근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한국로잔위원회 총무)는 “세 분의 논문과 논찬자들의 논평이 선교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용 범위를 확장하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 선교신학과 선교 현장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KWMA가 자선학회, 자선교회 학회 담론의 확장을 통해 선교신학과 선교 현장 사이에 가교를 놓는 역할을 지속 경과 기독교의 전통에 비추어 비평적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오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이집트 기독교인 “개종자는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모든 것 잃어”

인도 아삼 주에서 치유기도를 금지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통과되자 현지 기독교인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가톨릭 언론 크룩스(Crux)는 최근 '2024 아삼 치유 관행 법안'(Assam Healing Practices Bill)이 소위 '마법의 치유'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가혹한 벌금과 투옥을 가하겠다고 위협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비인간적, 사악하거나 마법적인 치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만

루피(약 164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삼 총리는 이 법안은 아삼에서 전도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고 크룩스는 전했다. 이 법안은 2월 26일 통과되었으며 발효되기 전 대통령 드루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 법안이 다른 주에서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었

던 개종금지법 도입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삼기독교포럼 회장인 구와티 대교구의 존 몰라치라(John Moolachira)는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의 일부다.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치유 기도를 한다. 아픈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도하거나 그룹으로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마술을 부리지 않는



인도 국기 ©pixabay.com

다. 왜 정부가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삼기독교포럼(Assam Christian Forum)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맥락에서 치유는 개종과 동의어가 아니다. 이는 종교적 성향에 관계없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자비로운 반응”이라고 전했다. 현지 기독교단체인 오픈도어(Open Doors)의 한 파트너는 “이 법안이 선교사역자들과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종교 단체들에게 기독교인과 그 기관에 대해 잘못된 주장

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법안은 특히 아삼의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근 마니푸르(Manipur)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아삼(Assam) 지역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인도 북동부 주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곳은 한때 기독교인들의 안식처였지만 지금은 끊임없는 폭력 소식으로 인해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이명경 기자

영의원들 “낙태 반대 활동가 재판... 놀라운 이중잣대 발견”

영국 국회의원들이 낙태진료소 완충구역 내 표지판을 들고 있던 은퇴 과학자에 대한 재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자유수호연맹(ADF)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인 은퇴 의학자 리비아 토시사-볼트(Livia Tossici-Bolt) 박사는 본머스의 한 낙태시설 근처에서 “원한다면 대화를 나눠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여러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그룹은 내무부에 그녀의 사건을 고려하여 낙태진료소 완충구역 내에서 합의된 대화, 평화로운 도움 제공, 침묵기도를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낙태 반대 활동가 리비아 토시사-볼트 박사가 표지판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 있다. ©ADF UK

민중연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의원 칼라 록하트(Carla Lockhart)는 토시사-볼트 박사에 대한 처우가 처안과 법집행에 있어서 “놀라운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록하트 의원은 “이미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법 집행 기관은 이번 경우처럼 완전히 온화한 행동보다는 실제 범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놀라운 이중 잣대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는 매우 불쾌한 견해가 종종 허용되지만, 의견 조차 제시하지 않은 이 기독교 여성에게는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단지 대화를 초대했을 뿐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그 시위자들과 리비아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토리당 의원이자 전 장관인 에드워드 리 경(Sir Edward Leigh)은 “무해한 대화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해 경고하면서 낙태진료소 완충구역이 ‘불필요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자유 사회의 기반”이라면서 “은퇴자가 무해한 대화를 나누자고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것에 화가 난다. 공공장소에서 평화롭게 대화를 제안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완충지대가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경고는 실현되었다. 우리는 한 여성이 두 번 체포되었고, 가톨릭 신부가 기소되는 것을 보았다”라며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길고 불필요한 법적 싸움을 거쳐야 승리했다”라

고 밝혔다. 보수주의자인 잭슨 경은 “이 사건은 이중 잣대 유자의 명백한 예”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의 문제에 대해 침묵기도를 제공하는 신앙인들이 낙인찍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범죄화되는 반면, 중요 행진을 하며 자하드를 외치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독성을 퍼뜨리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인 앤드루 브리젠(Andrew Bridgen)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이중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표현이 가혹하게 검열되는 반면 보다 유행에 맞는 견해를 표명할 권리는 보호된다는 증거를 반복해서 본다”라고 했다. 에드워드 경은 공공질서 법안 지침 초안에는 ‘완충지대’ 내에서 합의된 대화와 침묵기도에 대한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무장관은 이러한 상식적인 보호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나쁜 법에 의해 부당하게 범죄자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 의원인 앤드루 루어(Andrew Lewer)는 토시사-볼트에 대한 재판은 “검열의 ‘완충지대’에 내재된 표현의 자유와 신념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다”라며 “기독교는 범죄가 아니다. 자선을 제공하거나 합의된 대화에 참여하거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영국에서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충지대에 대한 내무부 지침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국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완충지대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명경 기자

니제르에 러 군사훈련단과 장비 도착

국영 방송, 러 비행기 앞에 선 로 군인 인터뷰 “군사 정부, 협력 국가 늘려 주권 강화 시도” 강조 미군 공항 짓고 600명 주둔해 대 테러 작전 수행

미국과 대테러 작전에 긴밀히 활동하던 니제르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에 안보를 의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러시아의 대공방어 군사 훈련단이 이번 주 도착했다. 니제르 국영 방송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훈련단이 군사 장비를 실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영상을 보도했다. 2명의 훈련 교관이 야간에 군복, 군모 및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 모습으로 비행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한 러시아 교관은 방송에서 불어로 “우리는 니제르군에 우리가 가져온 군사 장비 사용법을 훈련하려 왔다. 러시아와 니제르 사이의 군사협력을 위해 왔다”고 말했다. 니제르를 장악한 군사위원회(CNCP)는 아직 미군 추방을 명령하지 않고 있고 미 당국자들이 밝혀왔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도착하면서 미군 및 외교관

과 민간 요원들이 니제르에 잔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 니제르-미국의 합동 대테러 작전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 정부는 최근까지 니제르를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 대테러 작전의 중심점으로 활용해왔다. 미국은 또 니제르군이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IS) 단체와 연계된 반군을 물리치도록 많은 지원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미군의 훈련을 받은 군인들 일부가 쿠데타에 가담해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했다. 이후 니제르의 새 정부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했다. 지난해 말 미국 대표단이 아프리카를 방문한 뒤 니제르 군사 정부가 미군 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며 니제르에 미군 주둔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니제르 군사 정부는 미국이 러시아 및 이란과 협력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협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미 고위당국자는 니제르와 군사협력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이 쉽지 않겠지만 양측의 우려 사항을 푸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니제르 국영 방송은 니제르의 대공방어를 개선할 군사 지원품을 실은 러시아 항공기가 11일 밤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니제르 군사 지도자들이 지난해 통화한 뒤 러시아 군사훈련단이 도착했다며 니제르 군사 지도자들이 협력 국가를 늘려 주권을 강화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니제르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00명의 미군과 수백 명의 군속이 주둔하면서 유인 및 무인 정찰기를 운용하고 지하대 반군과 싸우는 니제르군을 지원하고 있다. 강영진 기자

美모건체이스 분기순익 18.5조 원... 순이자 수입은 32조 원

월스 파고는 순익 6.4조원...순이자 수입 16.8조원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12일 1분기(1월~3월) 순익이 전년동기 대비 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총수입이 9% 늘어나 419억 달러(67.8조원)에 이른 뒤 순익 134억 달러(18.5조원)를 기록했다. 특히 대출이자에서 대출비용을 뺀 순

이자 수입이 11% 증가해 232억 달러(32조원)에 달했다. 제이피모건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조8770억 달러(6300조원)에 총수입 1580억 달러와 순익 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직원 수는 31만2000명이다. 또 총자산 규모가 1조9000억 달러로

미국 3위인 월스 파고 은행은 올 분기에 순익 46억 달러(6.4조원)로 7% 감소했다. 월스 파고는 순이자 수입도 8% 줄어든 122억 달러(16.8조원)에 그쳤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월스 파고는 지난해 740억 달러 총수입에 순익 1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직원 수는 28만 9000명이다. 김재영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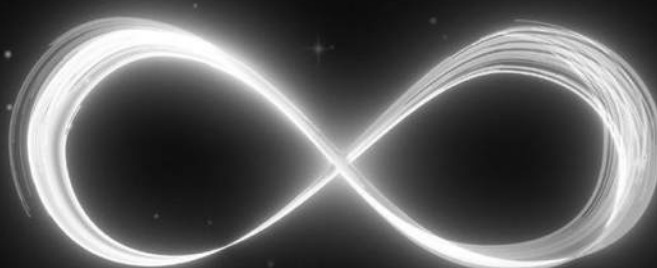
환경도 경기도 도시활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OPEN Hana Infinity Seoul

국내를 넘어 글로벌 No.1으로 도약하는 뉴하나 딜링룸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2488호(2024.04.01) / CC브랜드 240401-0017

윤, '신중한' 비서실장 인선 작업 진행

야권 반발로 후보군 재검증... 다음주 중반 인선 발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이후 비서실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여론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야당이 거론된 후보들을 "둘러막기

인사'라며 비난하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야권에서는 이들 인사가 국민의 신뢰를 무산할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후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중반, 늦어도 주말에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 이후 인사 검증에 최소 일주일의 필요할 것"이라며 신중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적 개편 폭에 대해서도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일부 참모는 정책 연속성을 위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안철수 의원 등 야권에서 대규모 쇄신을 주문하고 있어 과격적 인사도 불가피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형식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국 기자

노환규 前 의협회장 "의사·과학자 중심 정치세력 만들 것"

"잘못된 정부 정책 저항"... 과진언 결성하고 정당화도 검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과학자, 이공계인, 의사, 법조인 등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정치세력 결성을 천명했다. 노 전 회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이에 저항하기 위해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중심이 된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뉴스시스

그는 "필요한 경우 정당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다"며 "발전을 거부해온 정치가 발전을 이룬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결성하려는 단체는 '과학진리연합(과진언)'이라는 가칭으로 불리며 현재 온라인으로 회원 모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극 호소하는 글도 올렸다. 노 전 회장은 "일자리, 반도체, 교육, 법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을 함께하는 20여명과 1000명 조직을 만들어 코어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의사들만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과진언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판단인지 주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해주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과진언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과진언 회원 가입을 적

민주당, 국민의힘 반대에도 '채상병 특검법' 5월 처리 시동

'정권 심판' 민심 수렴... 여야 '특검법' 공방 예고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매듭짓지 못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 내부의 동조를 활용해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당일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여야가 임시회의를 협의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주도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자동 본회의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상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은 선거 과정에서도 논의가 지속돼왔기에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총선 직후 회의에서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정 심판이었다고 해석, 특검법 처리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권 심판론'에 따라 특검법 표결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특검법 표결 추진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민심을 확인한 상태인데 여당이 반대라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등 추가 특검법 처리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도 이에 공조할 것을 시사했다. 여야 간 '특검법' 공방이 예고되는 셈이다. 박용국 기자

2030세대 10명 중 8명 "국민연금 불신"

인구감소로 보험료 인상·기금고갈 우려...정부 지원 요구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20~30대) 10명 중 8명 가까이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구 감소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기금이 고갈돼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

다. 보고서에 실린 '2030의 노후소득보장 인식과 지원수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6%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신 비율도 높아져 30대의 경우 79.7%에 달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89.3%)과 '노후 연금액수가 너무

적을 것'(86.3%),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82.6%) 등의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층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73.3%)고 지적했으며, 기금 운용 과정의 불투명성(62.4%)도 지적했다. 노후 최소 필요 월수입은 평균 254만 7천원으로 조사됐지만, 절반이 넘는 56.8%는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이 적거나 주거비 부담, 고용 불안정 등이 주된 이유였다.

노후 소득 준비 중이라는 응답자는 예금·적금(62.7%), 개인연금(56.4%), 투자(52.2%) 등의 방식을 꼽았다.

71.7%는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41.6%가 '모든 노인에게 최소 노후소득 지원을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취약 계층에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 개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나래 기자

바이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규탄하며 G7 소집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 약속하며 "확전 막기 위해 외교적 대응 모색"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없는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안보를 재확인하는 한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을 소집해 이란에 대한 단합된 외교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지시로 이스라엘 방위 지원을 위해 미 군용기와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켰다"며 "우리 장병의 탁월한 기량 덕에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군사시설 공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내일 G7 정상들을 소집해 이란 공격에 대한 단합된 외교적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이나 시설에는 공격이 없었지만 모든 위협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란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직접 통화하면서도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

인했다. 다만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분명히 했다고 CNN에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직접 통화하면서도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

인했다. 다만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분명히 했다고 CNN에 전했다.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시행

20개 시군구서 신고전 긴급 심리·경제 지원... 아동 건강한 성장 도모

보건복지부는 14일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전후 단계에서 아동과 가정에 선제적으로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해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에 한해 전문 기관을 통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학대 피해는 없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사례 판단 이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신속 지원 중심형 ▲가족기능 회복형 ▲양육 코칭 지원형 ▲양육 상황 점검형 등 4가지 유형의 맞춤 지원이 제공된다. 이나래 기자

시군구는 이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최대 3가지 유형을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신속 지원 중심형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판단 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처분비용, 돌봄 비용, 의료비 등을 직접 지원한다.

가족기능 회복형은 향후 학대 우려가정에 가족 유대 강화 프로그램을, 양육 코칭 지원형은 아동·부모 갈등 가정에 전문 상담을, 양육 상황 점검형은 주기적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나래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안티푸라민

쿨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유한양행

차별금지법 발의했던 ‘기독교인’ 남인순·진선미 의원, 총선 당선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 37명 중 10명이 최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가운데, 이 중 남인순·진선미 의원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차별금지법안’을 △이상민 의원 등 24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박주민 의원 등 13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권인숙 의원 등 17인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4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총 수는 37명으로, 여기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민정(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

·유혜인(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재정(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 제3조 제1항이 ‘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내용인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를 삭제했고, 이어 제2조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를 삽입했다. 또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제8조)과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제8조, 제2항), 그리고 가족체제 예방 규정(제9조)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교계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을 두고



남인순(왼쪽)·진선미(오른쪽) 의원 ©기독교일보DB

“비혼동거 커플·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진평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교회에서 새가족부 교육 등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가 실생활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삶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기독교에 악 영향을 미치는지 교회에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 한다”며 “더구나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에게 더욱 잘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 교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교회가 정치에 이용을 당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는 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민낯”이라며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신자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분별력이 생겨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임하는데, 반대로 신자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뜻을 모른다는 반증”이라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나와 일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교회는 기독교 정치인들을 상대로 신앙교육을 잘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를 드러내고자 자신을 정치영역에 부르셨다는 사명을 안다면, 차별금지법(안)과 낙태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저출산 위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지키기 위해 싸워야”

현숙경 교수,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 셋째날 강연



현숙경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대구동신교회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와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공동주최하고 대구동신교회(담임 문대원 목사)가 주관하는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 ‘한결같은 주의 생명이’ 8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7시(12일은 저녁 8시)에 대구동신교회 비전관 생명홀에서 진행된 가운데, 넷째날인 11일에는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대전성서화운동본부 여성위원장)가 ‘저출산의 위기(요 10:10-11)’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1960년에 국제가족계획위원회(PPF)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출산 정책이 진행되었다. 이 당시 한 가족당 6명이 출산이 되었는데, 1983년도에 이르러 2.06명으로 하락했다. 즉, 인구대체를 이하로 떨어진 것”이라며 “분별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가 있었다면 이때 출산억제정책을 멈춰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4년 유엔인구회의에 참석했음에도 1996년까지 이 정책을 지속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초저출산(1.3명) 시대’가 도래한다”며 “그리고 뒤늦게 2005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게 된다. 멈추는 것 같았지만 2016년도에 들어서 출산율이 급감하게 된다. 이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페미니즘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출산 관련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수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0.6명대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진행된 출산장려정책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며 “2021년부터 오늘날까지 출산장려정책의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를 하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페미니스트들의 영향으로 성 재생산권이 추가되었다. 즉, 자유롭게 피임과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가족이 포함되었는데, 동성혼과 비혼 등도 가족으로 포함을 시켰다”며 “안락사도 포함시켰다. 유럽의 경우, 정신적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안락사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것은 미성년자들에게도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본문 말씀처럼 독도가 들어와서 독도를 짓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있다. 지금은 영적전쟁 상황이다. 크리스천들이 분별하지 못함으로 세상 흐름에 끌려가고 있다.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 된다는 흐름 속에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지 않게 하는 것이 흐름”이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크리스천의 의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며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모양만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세대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려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다. 둘째로 생명과 가정의 중요성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셋째로 인본·물질·개인주의 등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재 무신론을 가르치는 것이 인본주의의 모토”라며 “그야말로 영적전쟁의 상황이다. 이 전쟁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전쟁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 이것을 깨달아 아이들을 철저히 영적전쟁의 전사로 키워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이영훈 목사 “22대 국회, 저출생 문제에 지혜 모아달라”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사신)가 최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는 제 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목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사회 경제 외교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며 “이번에 국민들이 민의를 표출해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여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과거처럼 평가절하와 정쟁에만 빠지게 된다면 앞으로 역사와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가 소멸의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를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회의 모든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경쟁이 되어 했던 저출생 관련

이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새로운 국회는 장차 대한민국이 미래를 만들어 갈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결혼과 출산, 양육 등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목사는 “국제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사이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굳게 창출해 내야 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 외교적 지위를 굳건히 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국제분쟁 상황에서 평화를 위해서도 기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남북한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외교적 대응으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복잡하고 힘겨운 현안들을 새롭게 선출된 22대 국회가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자유통일당, 22대 총선서 역대 최다인 64만여 표 얻어

자유통일당이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실패했지만, 642,433표(2.26%)를 얻어 지금까지 도전했던 총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

기독교자유민주당, 기독교자유통일당 등의 당명을 거쳐 지금에 이른 자유통일당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228,837표(1.07%), 제18대 443,775표(2.59%), 제19대 257,190표(1.20%), 제20대 626,853표(2.63%), 제21대 513,159표(1.83%)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총선에서 얻은 642,433표는 종전 역대 최

다 득표였던 제20대 총선에서의 626,853표보다 15,580표가 더 많은 것이다.

자유통일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 묘원에 있는 故 조용기 목사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10일) 투표 결과 64만 표가 나왔는데 이전 대단한 것”이라며 “한 주제를 가지고 64만 표를 얻는 이런 사건이 한국 138년 역사에 없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진영 기자





● 재생자원(합성수지류)을 에너지로!

국내 최초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19년 | 연속식 열분해기술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로 24시간 연속운전 성공

2023년 | 국내 최초 단일기기 1일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24년 |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설비 설치검사 합격(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9년 | 연속식 열분해기술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로 24시간 연속운전 성공

2023년 | 국내 최초 단일기기 1일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24년 |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설비 설치검사 합격(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 공공열분해 선순환

REVOTECH REVOLUTIONARY TECHNOLOGY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가은로 311-43 | www.revogreenpia.kr

해방정국기 한경직의 전국신학 연구: '전도입국론'을 중심으로(3)

김일석 박사
임마누엘교회 담임
장신대



B. 목회적 기여

한경직은 전도입국론을 통해 교회 안팎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첫째, 해방을 맞아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 수립의 당위성을 설교하여 남한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 수립의 기독교적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둘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한 길이라 여겨 건국론을 선교론으로 치환하여 교회와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론을 창출하여 이후 세워지는 교회의 모범이 되었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셋째, 교회성장을 위한 신학적 기틀을 마련했다. 전도를 통한 건국운동은 필연적으로 민족복음화 운동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한국교회는 1960년대 이후로 폭발적인 교회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C. 신학적 한계

1. 성경주해의 빈곤함
명암(明暗)이 없는 신학은 있을 수 없듯 한경직의 전도입국론 역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건국과 기독교」에 수록된 27편의 설교 가운데 구약성경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3편에 불과할 정도로 지나친 신약성경 편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한경직의 목회관이 바울의 칭의론에 입각하여 전도를 목표로 한 주례설교로 경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예언자적 국가관으로 편만한 구약의 말씀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자의적 목적에 의하여 성경본문을 다루는 아이제제시스(eisegesis)적 방법으로 인해 성경은 결국 수단이 되고 정작 해방정국이라는 역동적인 현실에서 역시 성경말씀은 희석되고 만다.

2. 낙관적인 인간론과 낭만적 역사관

정교분리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경직은 건국과 민주화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환원(reduction)시켰다. 곧 전도를 통해 교회가 많아지면 민주주의 역시 자연스럽게 뿌리 내릴 것이라고 낙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은 한경직이 기대한 것과 같이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이 결정된 것이 아니요, 토론과 합의를 통한 절차적 민주화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온 것 역시 아니었다. 오히려 419혁명과 같이 한경직이 거부한 방식인 투쟁과 희생을 거처 혁명적 민주화 과정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경직에게는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과 죄악성을 간과한 낙관적 인간론과 더불어 교회가 나라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리라는 낭만적 역사관이 동시에 엮여있다.

3. 민주주의 이해의 빈곤함

한경직은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과 주권만을 인정하는 하나님나라 신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뿐 아니라 인간이 장안해낸 어떠한 이념이나 체제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더구나 교회가 많아짐으로 민주화가 촉진된다는 근거를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 교회들이 이탈하는 '탈교인'들을 대상으로



한경직 목사 ©기독일보DB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교회를 가장 비민주적인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와 같이 대의민주제 정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현실은 자극히 모순적이다.

4. 공교회성의 약화

한경직의 전도입국론에는 대의민주제로 운영되는 장로교회가 나라의 민주화를 가능케 한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회 내 정치원리가 장로교회와 사뭇 다른 교파들, 이를테면 감동제인 감리교회나 회중교회에 가까운 침례교가 많아진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더디거나 불가능한 것일까? 구프린스턴 신학의 특징인 배타적인 신앙고백적 교회론의 모순을 보여주는 한경직의 신학은 해방정국 당시 특정 체제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전통과 예전을 갖춘 교회들의 다양성마저 용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회의 본질 중 하나인 공교회성(Catholicity)을 약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5. 곡해된 정교분리의 원칙

한경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문제에 개입하는 일이란 "개인으로서의 가능하나 교회로서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완전분리와 상호불간섭을 강제한 것으로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교회가 따르던 정교분리 원칙의 유산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제가 한국교회에 일방적으로 규정한 정치 불간섭 행적 처분이었음을 따름이다. 한편 개혁교회에는 정권의 불평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신학이 있었고 이는 서구의 정치철학에서 저항권 사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유구한 전통으로 존재해왔다. 한경직은 이를 수용하거나 계승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어 정권에 유리하게 작동되던 정교분리원칙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여 해방 이후에도 고수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전복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6. 분단신학으로 가는

한경직은 전도입국론이라는 방법을 통해 세워질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야말로 장차 건국될 나라의 이상적 정체로 상

정한다. 더욱이 공산주의를 '계시록의 붉은 용'으로 지목함으로써 신학적으로 실체화하여 공산주의와의 대항나 협력마저 단절시킨다. 오히려 십자군의 궤기를 촉구하면서 백색 테러를 긍정함으로써 말미암아 냉전의 결과인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결국 기독교적 민주주의의 국가 수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와 체제로서의 북한을 배제함으로써 한 민족, 한겨레의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되었다. 이로서 남북의 분단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결과적으로 분단신학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VI. 결론

한경직은 해방 당시 서북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월남 이후 영락교회를 창립하여 부흥시키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부상하게 된다. 따라서 해방정국에서 한경직이 견지하던 국가관 및 정교분리관 곧 교회와 국가의 상관성을 추적하여 밝히는 작업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국가관의 원형을 탐색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해방을 맞아 한경직은 건국이라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과제 앞에서 영락교회 강단을 통해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설교를 행한다. 그러나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교회로서는 직접적인 정치운동에 나설 수가 없다고 생각한 한경직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건국운동을 장안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였다. "전도가 곧 최대의 정치운동"이라는 이른바 전도입국론(傳道入國論)을 확립하여 건국을 위한 교회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대의민주제를 교회

정체로 삼는 장로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하여 민주제도를 접하고 익힌 성도들이 사회의 곳곳에 포진하여 민주정신을 발휘하면서 새로이 세워진 나라 역시 자연스레 민주화된다는 논리였다.

한경직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체득한 지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에 기인한다. 한경직은 오산학교에서 서북 지역의 실력양성론을 익히며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나라에 봉사하는 선적이고 점진적인 방법론을 깨우치게 된다. 숭실대학에서는 민족에 우선하는 교회를 터득하고 백만인 구령운동의 일환으로 전도대를 이끌며 순회전도의 경험을 쌓았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는 구학파의 교회론을 계승하여 가시적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확장시켜야 함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지적인 이력과 체험은 해방정국 시기에 건국이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서 전도입국론으로 발현되어 더 많은 교회가 민주주의 국가를 창출하게 된다는 논리로 전개되었다.

한경직의 이러한 건국신학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수립되는 기독교적 정당성을 제공하였고, 건국론을 선교론으로 치환하여 교회와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했으며, 교회성장을 위한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의 방법론은 남북 분단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말았다. 따라서 한경직의 전도입국론은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신학적 스펙트럼이 이념에 종속되며 협소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장차 화해를 근간으로 한 통일을 지향하는 신학으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끝>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장현일 목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문교회



22대 총선 투표율이 67%로 2020년 21대 투표율 66.2%보다 높고 1992년 14대(71.9%)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60.6%) 이후 20년 만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민심의 기저에 흐르던 거센 정권 심판론이 지배적이었으며, 민생경제 문제가 더해진다면 국민들은 윤정부 상반기 국정 평가와 심판 귀결로 국정 전환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초저출생·초고령사회를 비롯한 시급하고 산적한 현안이나 정책제안이 정권심판론에 묻혀버렸다. 그 대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책실

종의 선거로 윤정부의 3년이 식물정부가 될 위험성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야야국회는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22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품격있는 발언과 표현, 대화와 설득으로 토론다운 토론의 선례를 보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특별히 야권이 국회 전체 의석의 63%에 해당하는 189석을 확보하여 개헌을 제외하고 원하는 모든 법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인 독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하기를 바란다. 여야 모두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상생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

둘째, 초저출생·초고령사회의 국가 위기 앞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실천을 위해 (초저출생생각부 범국민인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민·종교가 연합하여 범국민운동을 시급하게 추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국회는 초고령사회로 인해 6070세대 '그레이 선거구' 증가로 노인정책에 쏟는 관심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초저출생 관련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2030 청년정치인의 국회진입이 원활하도록 정당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예측 불가한 남북문제, 중국의 패권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복잡 미묘한 다양한 국제외교문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 그리고 외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국제적 위기 앞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생태적 정책전환 등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협력해 가는 외교 역량강화에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넷째, 이번에 당선된 기독교회의원들은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권과 복지, 환경 등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정치영역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선교 영역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위임된 위대한 선교와 문화명령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기독교회의원들을 의회선교 사로서 국회에 파송하였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격려하며 바른 정치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거룩성과 공공성,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22대 국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란다. 불통은 고통이고 소통이 행복이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집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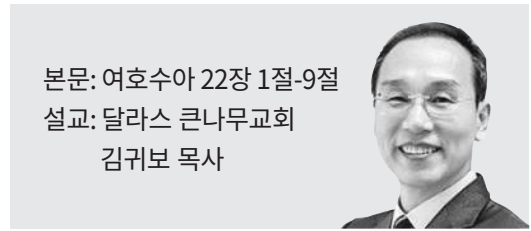
• 유류 지출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프 신박금융
• 기업구조조정신자립지원대응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약속을 지킨 사랑



김기보 목사의 본문이 이끄는 설교

본문: 여호수아 22장 1절-9절
설교: 달라스 크니무교회 김기보 목사

여호수아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장면을 꼽으라면 오늘 말씀이다. 물론 여호수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요단강물이 멈춘 사건, 여리고성 함락, 태양이 멈춘 일, 갈렙의 헤브론 점령하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다. 오늘 말씀은 강렬한 기적은 없다. 그런데 가장 평범하면서도 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다. 강력한 기적보다는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가깝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영적이고 멋진 교회가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다함께 모였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1절과 2절을 보자. "1. 그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2.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말했다. "모세가 명령한 것과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는 말이다. 얼마나 큰 칭찬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모든 범죄와 사기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발생한다. 약속을 할 때에는 모든 좋을 것을 다 줄 것처럼 속이고, 원하는 것을 다 챙기고 나면 말을 바꾸고, 도망가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작 된 것이다.

두 지파 반이 지킨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자.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한 땅이 탐이 나서 자기들에게 그 땅을 차지 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다.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런 이들의 모습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분노를 유발시켰다.

다행히 모세의 중재로 어려운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 나머지 지파들은 가족이 많았던 두 지파 반을 배려해서 땅을 먼저 차지하게 했고, 두 지파 반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완전무장하고 모든 전쟁을 선봉에서 싸우기로 했다. 두 지파 반에 속한 4만명의 남자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이 한 약속을 끝까지 다 지켰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약속한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3절을 보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날이 오래도록" 이 표현이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 가졌던 마음이 희미해진다. 마음 속에 피가 생기기도 한다. 상황이 다급하고,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한다. 물론 그때 한 약속은 진실에서 우러난 것임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함이 사라진다.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져보니 그것도 별것 아니게 느껴진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7년이나 걸렸다. 두 지파 반은 전쟁을 할 때마다 가장 위험한 선봉에서 싸웠다. 전쟁을 하면서 동료가 죽거나 부상당하기도 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희생 없이 신실함이 나올 수 없다. 수고 없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두 지파 반은 과거에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지파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했다. 욕심보다 신실함을 택했다. 눈 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두 지파 반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아홉개 반 지파가 용서하고 배려한 결과이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다. 한번 잘못 했다고 정죄하고, 심판해 버리면 회복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런데 기회를 주면 만회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용서로 두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다. 용서는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자기 변명을 위해서 용서를 원한다면 그 용서는 가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죄를 계속 짓기 위해서 용서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회복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욕심 때문에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라. 눈 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잠22:1)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다. 두 지파 반이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가? 여호수아와 나머지 지파들이 인정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를 스스로 칭찬한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입으로 말한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 하지 않으신다. 사람들도 크레딧을 주지 않는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7:22-23) 자기 스스로 엄청난 일을 했다고 말을 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하셨다. 우리가 스스로 한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 될지 두렵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셔서 진짜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하라. 사람들이 말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두 가지로 했다. 첫번째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조언을 했다. 5절을 보자. "오직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두 지파 반은 이뤄야 할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때부터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

는 것이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한다. 그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일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한다. 마치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일을 하라고 하면 잘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할지 모른다. 자기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야 존재감을 느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라. 믿음의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섬김을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을 떠나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 8절을 보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라" 두 지파 반이 선봉에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땅을 먼저 분배 받는 이익을 얻는 댓가로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들이 한 수고와 희생의 댓가는 이미 지불되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 탈취물과 전리품을 후하게 주어서 가져가게 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축복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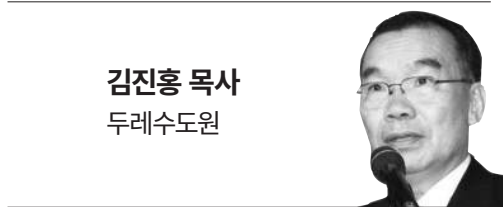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하나님께 더 요구할 것이 없다. "7.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눅17:9-10)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섬긴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은 없다. 우리는 섬김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는 두 지파 반과 나머지 지파 사이에 일어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아홉개 반지파가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를 먼저 생각했던 두 지파 반이 형제를 위해서 싸우고, 약속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머지 아홉개 반 지파는 이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었다. 그리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4-25)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히브리서의 신앙(1)



김준호 목사 두레수도원

히브리서를 일컬어 제5복음서라 합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4복음서는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던 때의 행적을 적은 책이나 히브리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들을 돌보시고 챙기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제5복음이란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환난을 이기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다음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흘러 떠나려간다는 표현은 정박할 항구를 잃고 바다 위를 떠도는 배를 일컫습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배는 고향 잃고 떠도는 나그네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인생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입니다. 나그네 길은 어느 유령가 가사에도 나오듯이 목표 없이 떠도는 길입니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바람 부는 대로 떠도는 길입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길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고 실패와 좌절이 때로는 따르지만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기에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히브리서는 기록된 취지가 바로 그러한

니다. 나그네 길로서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담담하게 전진하라는 권면이 면면히 흐르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일러 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브리서 3장 1절)

이 말씀에서 첫 단어인 '그러므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시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삶이 이어집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의 것들에 한눈팔지 말고 예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기결림), 타박상, 골절상, 염좌상(뱀물상),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위기에 처한 기독교의 현황과 로잔의 역할



성공적인 로잔대회를 위해 숙고해야 할 사항들(4)

오늘날 세계기독교의 상황은 다소 암울하다. 물론 여전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다소 그 역동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인다. 1900년에 전 세계 인구의 34.5%를 차지하던 기독교는 2000년에 32.5%가 되면서 점유율에 있어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특별히 기독교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서구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기독교는 심각한 퇴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비서구 세계에서 선교의 핵심 주자 역할을 하던 한국교회마저 심각한 약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서구 등의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세속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세속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종교 기관들의 범위와 영향력이 축소되고, 신앙에 대한 인기도와 영향력도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교회 참여가 축소되고 있다. 한편 이슬람과 공산권 등의 기독교 핍박 지역에서는 선교에 대한 강력한 핍박과 저항 등으로 선교의 열매가 거의 맺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선교관에 있어서 복음 전도 중심의 선교개념보다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간화와 삶을 이루는 폭 넓은 의미의 통전적 선교 개념이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기독교 자체 안에서 선교 열정이 많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기독교 선교는 내부적으로 복음전도의 열정이 약화되고,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핍박 또는 세속화의 저항을 맞으면서 대내외적으로 침침한 다양한 장애물들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에 타종교의 경우 왕성한 성장

보이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이슬람의 성장은 참으로 놀랍다. 이슬람은 1900년에 12.4%를 차지하던 비율에서 2000년에는 21.1%로 늘어나 점유율로만 해도 2배 정도의 성장을 하였으며, 숫자뿐만 아니라 1900년에 2억이던 무슬림이 2000년에는 12억 3천만 정도로 성장하여 6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퓨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이슬람은 2050년에 29억 명 정도로 성장하여 기독교와 비슷한 교세를 이룰 것이며, 2070-2080년에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종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자체의 건강한 발전 방향과 전략을 두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약화가 지속되어 기독교가 쇠퇴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구 유럽의 경우 기독교가 약화되고 그 자리를 타종교가 대체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특별히 이슬람과 같은 종교가 한 사회를 차지하게 될 때 그 사회의 모습은 대부분 폭력과 감압으로 얼룩진 사회의 모습으로 변

하며,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 기구 중 하나인 로잔에 가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 특별히 로잔은 WCC와 다르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기치로 내걸고 태동된 운동이다. 로잔은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태동되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 동안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약화되어 가는 기독교를 살리고 펼치는 일에 로잔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로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낼 것이다. 한 쪽에서는 복음주의 우선성을 더 분명히 하고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잔의 핵심 리더들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리더들은 그 다양한 생각들을 그냥 다 한 울타리에 넣어 적당히 봉합하고 모두가 화합하고 맛있는 분위기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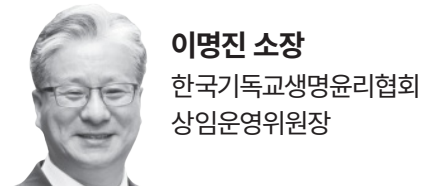
서 끝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별히 로잔의 핵심 가치 '경계 안에서의 포용(breath within boundaries)'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냥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서로 배우고 가면 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하면 행사는 모두가 축하하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무난히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5천명이 넘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재원을 쓰고 7월이나 되는 기간을 머물면서 그냥 좋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행사라면 WCC 총회 하나로도 족하다. 로잔은 WCC와는 달라야 한다. 로잔은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 운동 중 하나이고, 복음주의란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복음이 세계 구원과 변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출발점이라는 믿음을 가진 신학이다.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로잔은 이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확산하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주의 운동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오늘날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내외외환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복음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복음주의 로잔 4차 대회는 복음의 우선성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정립하고, 복음의 불씨를 강하게 확산하여 위기에 처한 기독교를 새롭게 일으키는 일에 기여하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안승우 교수(영남신대)

성경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에서 수학한 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신학석사(Th.M) 학위와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총회 파송으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했으며, 풀러신학대학원 객원교수, Journal of Asian Mission 편집위원, 한국로잔 연구교수회장,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비혼 출산, 대리모 출산해도 되나요?



크리스천과 생명윤리(12)

◆보조생식술
보조생식술에는 시험관 아이로 알려진 체외수정과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주입하는 인공수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난임부부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방법이다. 1978년 영국에서 체외수정을 이용한 시험관 아이 출산이 성공하면서 난임 부부에게 자녀 생산의 길을 열어 주었다. 최근에는 혼인하지 않은 여성들과 동성애자 커플 등이 대리모 출산이나 정자은행을 통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2023년에는 20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연 이들의 입법 의도는 합당한 것일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

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비혼 출산과 대리모 출산에 대한 성경적, 생명윤리적 문제를 알아보자

◆성경이 말하는 자녀 생산
성경적 기준을 의면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게 되면 인간의 번식 과정을 동물의 번식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꼴이 되어버린다. 동물의 번식을 위해 우수한 정자나 난자를 여러 동물에게 수정하는 번식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① 인간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동물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만드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②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한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통해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도록 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마태복음 19:4-5)

③ 혼외 성관계를 심계명을 통해 금지하셨다.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만나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한 자녀 생산만을 허용하셨다. 혼전이나 혼외 성관계는 죄라고 정하시고 금지하셨다.
“간음하지 말라”(출 20:14)

◆세속적 관점
성경적 기준이나 생명윤리적 기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생식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통해 1)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2) 출산율을 높이고, 3)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혼자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정을 갖지 않고도 정자은행이나 난자은행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혼 출산과 대리모와 관련된 문제들

① 법률적 관점
대한민국 헌법은 건강한 가정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반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3년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하는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발상이다.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와 충돌하는 법이나 출산 정책은 추진되면 안 된다.

② 우생학과 연관성
보조생식술은 시행 단계에서부터 우생학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내가 원하는 외모와 성별, 피부색 등 특정한 특징을 가진 아이를 낳기 위해 정자와 난자를 선택하여 매개할 수 있다. 고,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별인 경우 수정란을 배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③ 유전병과의 관련성
비혼 출산에 따른 정자 제공이 같은 지역 내에서 집중될 경우, 비슷한 외모와 유전적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자가 병력과 학력 등을 속이고 정자를 제공하기도 했다. 비혼 출산 허용한 일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들이다. 또한 이런 상황은 비혼 출산으로 탄생한 아이가 성장하여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근친혼의 위험성과 관련된 유전병 발생의 우려를 가져 올 수 있다.

④ 동성 커플 자녀와 심리 정서적 문제
비혼 출산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자라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동성 커플의 아이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⑤ 아이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우려
비혼 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등 개인적 상황이 변화된 경우, 정신적으로 피곤하여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아이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⑥ 의료 윤리와 충돌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특정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의료인들의 윤리적, 종교적 신념과 충돌할 수 있다. 인간의 왜곡된 탐욕을 법안에 담아 강제하는 것은 법에 의한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의료인들의 자율성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비혼 출산, 대리모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반성경적 행위
모든 의과학 기술은 반드시 윤리기준을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가능한

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기에,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 필요하다. 모든 행위에는 의도, 방법(행위), 그리고 결과, 이 세 가지 모든 요소가 바람직해야 한다. 개정안이 추구하는 방향은 기존의 의료적 목적에서 벗어나, 가정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해야 할 의술을 남용하는 행위다. 잘못된 방법으로 의술을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윤리적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은 난임을 겪는 부부를 도와주는 의료적 방법이다. 성경적 기준이나 보편적 윤리기준을 벗어난 보조생식술의 이용은 의학이 주는 유익을 해이로 바꾸어 버린다.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공급받아 동물의 번식처럼 아이를 생산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반성경적 행위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결혼제도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행복을 물로 더 행복한 세상!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영화 리뷰

소외된 이들을 향한 시선... <나, 다니엘 블레이크>

노재원 목사의 무비엔 바이블



※ 이 글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대한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십 년간 목수로 일해 온 다니엘은 심장병에 걸려 일을 그만뒀다 할 상황에 놓입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관공서에 가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번번이 허탕을 칩니다. 생계 보조금을 수급하려고 관공서에 온 상급담당 케이트는 지각했다는 이유로 수혜를 받지 못하자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곤경에 처한 케이트를 다니엘이 도와주면서 그들은 가족과 같은 끈끈한 관계가 되지만, 그렇다고 비루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활고를 못 이긴 케이트는 어둠의 길을 선택하고, 다니엘은 수급 자격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힘을 내 다니엘의 질병 수당 자격 탈락에 항고하지만 예기치 못한 불행이 결정적인 순간 찾아옵니다.

◆복지제도의 허점을 그려내다
2016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켄 로치 감독)는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현대 복지제도의 허점과 모순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꼬집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다니엘은 의사의 소견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모순적이게도 구직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자칭 '연필 세대인 다니엘에게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이력서를 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각종 신청이란 것도 인터넷으로 진행하니 다니엘로서는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라는 말에 마우스를 모니터 위에 올려 대는 장면은 컴퓨터에 취약한 소외계층에게 현대식 절차란 유리장벽과도 같음을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 속 복지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담당 공무원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각종 수급제도 또한 분명 합리적이죠. 하지만 복잡한 절차는 그 자체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다니엘처럼 인터넷 사용자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허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컴퓨터 앞에서 찢찢매는 다니엘을 도와주려는 공무원은 절차상 문제를 유발한다며 상급자에게 책임을 들입니다. 질병 수당에 대해 다니엘이 공무원과 통화하는 장면에서 화면은 마치 암전 처리된 것처럼 음성만 들릴 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복지제도 안에 정작 사람의 온기가 없음을 은유하는 장면이지요. 영화는 취약계층의 비루한 현실을 건조한 연출기법으로 묘사하면서 복지제도라는 시스템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취약계층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취약계층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서 바치는 제물을 행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소나 양보다 값이 싼 비둘기를 바칠 수 있게 하였고, 극빈한 자들은 아주 적은 양의 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스틸 사진 ©배급: (주)영화사 진진

만 드려도 되게끔 하셨죠. 가난한 자를 배려한 예외규정을 두셔서 그 누구도 제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레위기 14,5장).

도피성 제도는 복지제도라기보다는 사법제도에 가깝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배려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으로서 재판을 통해 과실치사였음이 밝혀지면 비록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지 빨리 당도할 수 있도록 거리를 감안해서 여러 곳을 두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도피성으로 향하는 노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잘 닦아 놓게끔 하셨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규정을 어기는 행위였음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누가복음 6:6-11). 안식일이라는 규정보다 그 규정의 취지와 본질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눈앞에서 병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안식일이라는 규정에 얽매어 돌지 않는다면 영화가 그려내는 모순적인 복지제도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성경 속 사건들과 복잡한 현대사회의 복지제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꼬집는 모순에 대한 원리적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배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제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겠지요.

노재원 목사는 현재 (사랑하는 우리교회)예장 합동에서 청년 및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아는 만큼 보이는 성경'을 통해 기독교와 대중문화에 대한 사유를 대중과 공유하고 있다.



社說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재연될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계로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화 될지 예의 주시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얻은 의석수는 비례를 포함해 총 175석이다.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지난 21대에 이어 또다시 정국 주도권은 쥐게 됐다. 범야권까지 포함하면 190석 안팎이 돼 개헌만 빼고 뭐든 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정당의 힘은 실로 막강하다. 여당이 반대해도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본회의 의사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도 있다. 어떤 법안이라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상황이 현실로 닥치자 교계의 근심도 답답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 초에 정의당과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잇따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 모두 4명이다. 이중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한 사람이다. 첫 발의자였던 장혜영 의원(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평등법'을 발의했던 이상민 의원(국민의힘), 권인숙(더불어민주당)의원 등 3명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모두 37명이다. 이중 27명이 탈락하고 고민정·김용만·남인순·박성준·이수진·이재정·전용가·진선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진보진영과 연합해 만든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용혜인 의원까지 합해 총 10명만이 살아남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진보 성향이 뚜렷한 정의당이 사실상 주도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조선의 장혜영 의원이 개원 초부터 대표발의자로 나서자 이어 민주당 소속의 3명의 의원이 대동소이한 내용의 법안을 연달아 낸 게 말해준다.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에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정책적 연대를 시도했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도 진보 성향의 정당 간 공조 차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동성애 이슈를 선점했던 정의당은 이번에 녹색당과 합세해 녹색정의

당이던 이름으로 총선에 나섰으나 한 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 신세가 되고 말았다.

친 동성애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정의당의 몰락을 동성애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동력 약화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민주당이 진보진영과 연합해 만든 더불어민주당연합을 통해 비례 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이들이 그 바탕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관련 이슈에 있어 정의당 못지않게 노골적인 색채를 드러낼 것만 건 누구도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 진영과 소위 '빅텐트'를 구성했다. 이들 중에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명령으로 강제 해산된 과거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이 다수 포함된 점을 교계는 특히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대북 안보관련 정책에까지 관여하게 되면 어렵게 회복한 한미동맹과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계 일각에서 국회에서 기독교 정치를 실현할 정당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바람을 안고 22대 국회에 도전했던 자유통합당이 이번에도 지지율 3%대를 넘지 못해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 관련 입법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자유통합당의 국회 진출 무산으로 교계의 '차별금지법' 대응 또한 한층 버겁게 됐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11일 발표한 총선 관련 논평에서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입법 시도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직접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등 거론했다. 그러면서 만약 22대 국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불의한 악법 제정 시도가 다시 재연된다면 "한국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개원도 하지 22대 국회에 교계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보진영이 각종 악법을 밀어붙였던 전례로 보아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국회의 순기능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압도적 다수당이더라도 사회를 혼란케 하는 법안을 합부로 남발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다만 교계는 건강을 늦추지 말고 기도에 전심전력 하되 연합기관과 교단, 단체들까지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한국교회의 분명한 의지를 정치권에 각인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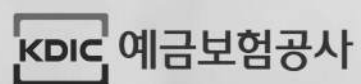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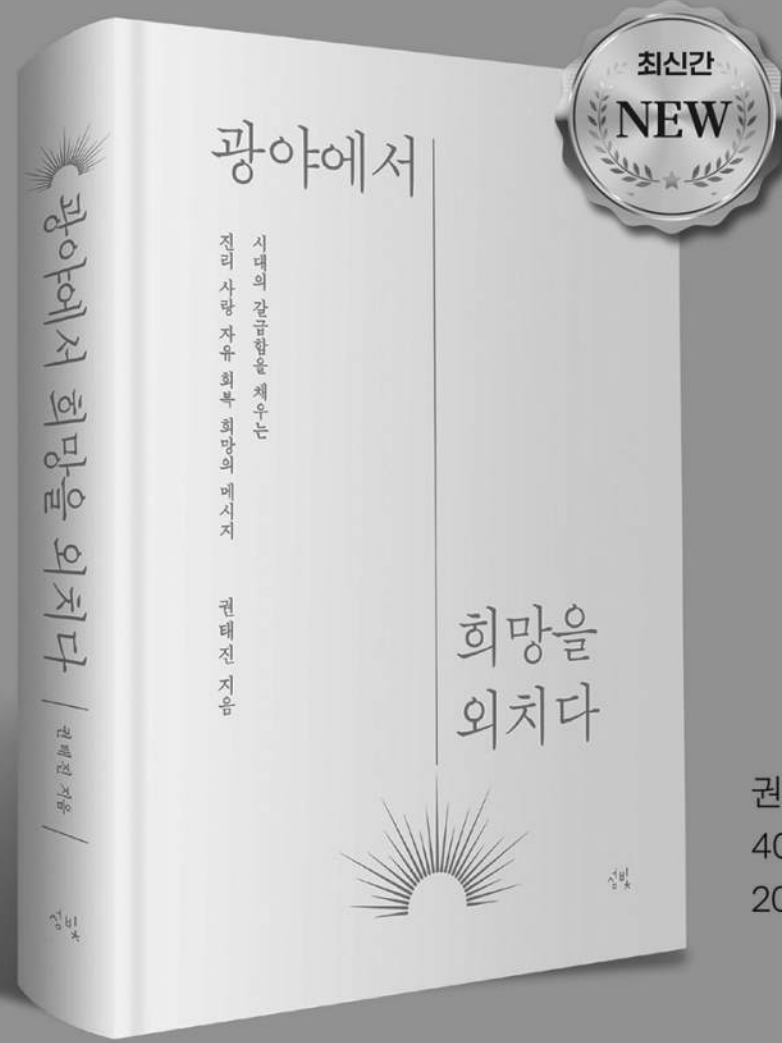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국가를 위해 쓰신 일기장”
이훈근 박사 _ 국제정치학자

“광야에서 외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장종현 목사 _ 백석대학교 총장

“진리의 기적 소리”
정인찬 목사 _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변함없이 진실한 시대의 사명자”
정서영 목사 _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책”
김만형 목사 _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장

“빛을 잃지 않는 깊은 울림”
권영해 장로 _ 전 국방부 장관

“복음에 뿌리를 둔 광야의 외침”
문성모 목사 _ 전 서울장신대 총장

“고뇌와 호소가 담긴 믿음의 유산”
서헌제 교수 _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거룩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좌표”
남진석 설립 이사장 _ 글로벌선진학교그룹

“말씀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책”
박명수 교수 _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통찰과 사색이 담긴 글”
임태희 _ 경기도교육감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성도들과 신령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아버지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김으로 낮아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월남전(맹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찬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 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신교부장 임오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 1장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성경여행서!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저술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이해되고 계속 읽혀집니다.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실하고 적용이 탁월합니다.
경건을 갈망하는 크리스천이 기다려 온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권요합니다.
말씀사역자의 평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자 | 김명재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담교회
발행 | 하우출판사 (온오프라인 판매)
(각권 484면, 권당 24,000원)

온라인 판매처 | 알라딘 yes24 영풍문고 KYOBO 교보문고



제1권 창세기-뫼기



제2권 사무엘상-욥기



제3권 사면-이사야



제4권 이사야-마태복음



제5권 마가복음-요한계시록

NAVER 성경 1장 칼럼 성경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책을 펼쳐라 - 교보문고-

2024년 4월 복지교회 POWER UP!

교회복지세미나 (무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레위기 21장 17절~21절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일시장소 4월 18일(목), 20(토) 11:00~14:30
안양복지교회 (위치: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61번길 30)

모집인원 요일별 선착순 30명

주제 1. 장애와 관련된 성경 용어 수정 및 이해
1. 교회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강사 조상원 목사 교회복지연구원설립자
-The Christian Welfare Campus of Harvest Bible University 학장역임
-주요저서: 교회복지이해, 장애와 관련된 성경용어 수정 및 이해, 다시 읽는 성경(신약편), 교회와 장애인복지

등록 | 홈페이지 등록 www.cws95.net
문의 | 문자등록 010-9643-6356, 점심식사 제공

한국교회복지사회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6학기	·세례를 받은 자 ·남녀 성관습이 사명이 투철한 자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학점은행제	월-토(10사-22사)	

특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의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와 협력교육기관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육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평생교육원)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평의교회회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찬사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성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교회건축포럼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우리은행 _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티안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할스 스텝과 운영기술
- 연무대학교 7000여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령교회/ 호산나교회)



인테리어

에스프리글로벌 최종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상황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병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례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우선이다
- 교회가 잘 될 때, 건축위원회가 잘 될
- 설계자의 업무, 사공사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죄인과 소외된 사람들이 환대 받는 교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어쩌다 기록하게'



교회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론만큼이나, 실제하는 교회는 저마다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교회에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죄인을 환대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소외된 이웃,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나쁘게 감당하며 포용할 수 있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회조차도 깨어진 죄인들의 모양이니까요. 결국 죄인이 죄인을 수용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부

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미안해하기보다 억울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실제로 교회답게 살아내는 교회를 찾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목회자, 죄인을 수용하는 교회를 통해 추상적 명제가 아닌 실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서사가 우리에게 쌓이다 보면 희망의 빛을 쫓아 우리 또한 한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교 목사인 나디아 볼츠웨버(Nadia Bolz-Weber)는 한번 보면 잊지 못할 외모를 지녔습니다. 근육질의 몸은 문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지만 과거는 정반대입니다. 강마른 몸에 홀로 식사를 해야 해서 늘 외톨이였고 고백합니다.

홀로 합계운 시절을 보낸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분노로 풀어냅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신학생인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고, 자신도 루터교 목사가 됩니다.

볼츠웨버 목사는 시종일관 솔직하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전히 입에 욕을 달고 살며, 우울증과 공황 장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기록함을 추구합니다. 그 기록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외된 이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녀의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혹은 드러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철저히 외면받았던 그들은 나디아 볼츠웨버의 교회에서 이웃이 됩니다. 환대 받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교회나 목회자가 이 교회와 똑같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품고 있는 예수님의 정신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죄인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니까요.

모중현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신간

아무 것도 줄 수 없는 공휴

오직 가진 자의 공휴만 강조하는 시대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공휴는 하나님의 코에 달콤한 향기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완전한 공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다. 저자 이창우 목사(카리스 교회 담임)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귀하게 여겨야 할 공휴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새로운 관점을 이 시대에 제시해 드리려고 한다. 비록 흔한 단어이고 많이 되풀이된 주제라고 하지만, 공휴(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다(고전 15:19).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 먼저, 율법 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실 때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라고 물으셨다. 근본적으로 관점이 뒤집힌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질이 따르지 않는 공휴(이란 것이 과연 존재

할 수 있는 것일까? 따라서 이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다. 돈이 실재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영원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이 시간에서 보고 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르라면 돈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반면, 공휴만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것도 없다. 따라서 공휴가 돈과는 무한히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원은 공휴를 이해하고 있지만 돈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자 그리스도인이 공휴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도울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질수록, 이 모습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는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교육 분야에서도 현재 뜨거운 이슈다. 수많은 교육 관계자에게 '생성형 AI 시대에 교육은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챗GPT-4가 SAT, ACT1, AP를 비롯해 미국 수학경시대회 문제와 미국 대학원 수학 자격시험(GRE)을 치른 결과, 최상위 10%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이제 기존 시험 방식으로는 학생 역량 평가에 한계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책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카시오페아)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 컨설턴트이자 미래 교육 전문가인 저자의 아이들을 미래형 인재로 성장시킬 방법론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 하버드 등 미국 명문대 입시 경향이 바뀌는 추세다. 뛰어난 교과 성적, 높은 SAT 점수, 다양한 교내 활동과 수상 경력 등 좋은 스펙을 가진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합격 통지서를 받기 어렵다.

이들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개인적 특성'이다. 개인적 자질, 인격, 인성 등으로 번역이 가능한 이 항목은 적극성, 인내력, 협력할 줄 아는 능력, 의사소통 능

력 등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하드 스킬'과는 대조되는 역량인 '소프트 스킬'을 통칭한다.

저자가 아이들을 체인지 메이커로 만들어주는 비결을 실제 사례와 자신이 가정과 학교에서 적용한 방식을 토대로 설명한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실전 AI 커리큘럼'도 담았다. 가정에서 챗GPT를 활용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들도 제시한다.

그 밖에도 구글 검색 엔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디지털 리더십 역량을 길러주는 방법 등 아이에게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켜줄 팁도 담았다. 이수지 기자

4월, 작가들의 말말말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성화를 목표로 한 성장과 성숙입니다. 결혼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경험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과 성숙,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디자인하신 결혼 설계자의 주요한 의도라고 확신한다면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며, 자신의 섬김과 희생,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어설플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높여 줘야 합니다. 배우자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높이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이 인간, 원수, 마누라, 여편네' 등으로 비하하는 말은 결국 자신도 비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배우자를 높여 주고, 배우자에게 가장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십시오.

김승경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모세의 노래, 곧 모세의 예언은 그 핵심 주제가 그들이 비록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연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다. 모세는 꿈이 있는 자가 망하지 않을 인생의 미래를 예언하지 않았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인생의 미래를 예언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인생의 미래를 예언하지도 않았다. 긍정으로 확신하고 긍정으로 시인하면 잘되는 인생의 미래를 예언하지도 않았다. 모세 선지자가 모압 평지에서 불렀던 노래의 말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영원한 노래는 이렇게 아시아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선지자의 소리,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의 노래, 곧 영원한 복음으로 그 불멸의 명맥을 유지해 간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지자는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 그날에 우리는 음이 극한의 환난을 인내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결말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약속하셨던 영생이라는 최후의 지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인내하는 교회에게 약속된 결말은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밖에서부터 이 세상 너머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고난의 광야를 지나간다. 김나사로 '광야에서 부르는 하늘과 땅의 노래'



성경은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같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며 그 길을 보여 주고 알려 줍니다. 그 길은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며,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선인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히 11:3)라고 합니다. 김권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매일묵상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말씀II

저는 게이 운동에 대해 100% 완전히 그리고 완강하게 반대하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요 그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 호모와 양성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가 누구와 상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분명 제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마지막 날에는 약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약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했습니다.

잠깐 더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펜과 종이 있으면 꺼내 주십시오.

성공회 주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이 게이를 인정한다고 말하므로 주위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 신학 교수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성경은 반대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스러운 성경을 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

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영감이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숨결 즉, 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고 바로잡음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구요. 17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 그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 지는 이 성경책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회 주교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동성애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로빈슨을 옹호하는 많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할 하기로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2개의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 다른 하나는 여성입니다. 최근 UN 회의에서는 5개의 성이 있다는 주장

이 있었습니다. 남성, 남성 동성애자, 여성, 여성동성애자, 양성애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최종권위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1-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가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고 버터 샌드위치를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자가 있는 것이 좋기에 남자를 위해 여자를, 분명 여자를 남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동성애에 대한 것은 창세기 19장 5-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아래로 들어왔은 즉, 그들

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하매” “알라(Know)”한 것은 그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롯은 여러식에도 이에 대해 8절에서 체킨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가고 이 남자를 놔두라고 합니다. 유다서 7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음행에 내어 주고 낯선 육체를 추구하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음행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성경은 음행을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것은 접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음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법률은 동성애를 금지했습니다. 레위기 18:22을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이것은 생생하게 묘사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님께서 성경에 쓴 것입니다. 이것으로 동성애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것 아닌가?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 별로 참오심이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누우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루는 동성애에 대한 무서운 법입니다.

신약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4-27절을 보십시오. 또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어 주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은이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런 애정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

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일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하여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대 마음대로 하라, 나는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정욕에 내어 준다면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둡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동성애는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도, 아무도 동성애로 태어나지 않았습니.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것은 유전적 성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지에는 그렇지 않다는 분이 있었지요. <계속>

클 버드 칼버트 목사(페어팩스 baptist 템플(Fairfax Baptist Temple) 교회) /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바이블지식IN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주님의 징계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종종 무시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운 징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무지는 신자의 삶에서 습관적인 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 결과 더 큰 징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징계는 냉담한 심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반응이며,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짖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 함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11-12; 히브리서 12:5-11 참조).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곤경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징계의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야고보서 1:2-4).

특정한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진을 파괴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징계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 곧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을 반영하는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15-16).

갯켄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Genesis 17:1 NIV
When Abram was ninety-nine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faithfully and be blameless."

- appear to : ~에게 나타나다
- God Almighty : 전능한 하나님
- walk : (고어) 생활하다

- faithfully : 성실하게
- blameless : 죄가 없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아흔아홉 살이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죄가 없도록 하라.”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Genesis 25:11 NIV
After Abraham's death, God blessed his son Isaac, who then lived near Beer Lahai Roi.

- God blessed : 하나님께서 도와 주고 보호해주셨다
- then : 그때
- Beer Lahai Roi : 브엘라헤로이 (팔레스타인 남방 가데스 바네아)

인근에 있는 우물)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도와주고 보호해주셨으며, 이삭은 그때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ABC

광동코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Kwangdong

제조 · 판매원 : 광동제약(주)

침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침향 16%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희의 진한 정성, 광동 쌍희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물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선을 품으면서 세상의 일시적 보상 얻는 길은 '없다'

키에르케고어를 만나다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14) 경험의 학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의 학교'에 들어간다. 우리가 사는 한 모든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학교이기도 하다.

인생의 학교는 어른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참석하는 학교보다 다소 더 엄격하다. 어른들은 잘 안다. 이 학교 교육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힘든지.

어른들은 이 학교에서 끊임없이 저항한

다. 이 학교의 교육과 훈련이 힘든가? 그리하여 이 학교 교육에 저항하고 저항하다가 자신의 요구를 축소시킨다.

슬픈 일이다. 그는 선을 고집하는 한, 오직 선만을 마음에 품는다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다. 열심히 살면서 선을 품고 살면 삶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떤가? 어른? 점점 더 선에 대한 믿음, 선에 대한 담대한 확신은 사라져 간다. 그는 주변을 살펴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움켜쥐었는지 본다. 조금만 세상과 타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본다. 그리하여 그는 심약해져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경험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때 그의 마음은 변했다. 선생이 없을

때,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통 학생들이 주도권을 쥐고 뒤늦고 떠돌고 있으니 우수한 학생들은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다.

학교에 선생이 없을 때 우수한 학생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경험의 학교에서는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이 경험의 학교에서는 선생이 없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해서 경험의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이 의지할 만한 선생이 없다. 경험의 학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학생이니까.

이 경험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진리 안에서 선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면, 보통 학생들이 와서 한 마디 한다.

"좀 쉬는 게 어때? 사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많은데 안타깝네"

따라서 이 경험의 학교에서는 그를 이끌 선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오직 선을 마음에 품고 계속 진군하려 한다면,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격려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어른, 그는 이 격려를 찾지 못했다. 그의 용기는 금이 갔다. 결국 그는 세상에 굴복하고 만다.

세상은 그에게 보상을 한다. 그가 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과 타협하며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 악이 행벌을 가져다 준다면, 그는 계속해서 악을 배척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보상으로 유혹할 때, 그는 쉽게 보상을 물리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두 마음이다. 선과 보상은 갈립길이다. 이질적이다. 보상을 얻기 위해 선을 구할 수 없다. 제3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선을 품으면서 세상의 일시적 보상을 얻는 길은 있을 수 없는 길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다.

우리의 착각은 이렇다. 처음에는 이 길이 좁다. 하지만 점점 더 넓어지다가 언젠가는 탄탄대로가 되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착각. 이런 착각은 두 마음을 품게 한다.

주님의 길은 처음에는 좁다. 그런데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은 점점 더 좁아진다. 결국 점점 더 좁아지다가 죽음에 이른다. 세상에서는 이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세상이 이 길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길이 보인다.

따라서 경험의 학교에서는 이 길을 볼 수 없다. 경험의 학교에서는 한 마음을 품기가 힘들 뿐더러, 오히려 좋은 학생을 되보시길 뿐이다.

그러나 경험의 학교에서 배우려 하지 말라. 믿는 자가 입학해야 할 학교는 고난의 학교다. 이 학교의 교육은 경험의 학교보다 더 고되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유익하다.

이곳에서 차라리 선으로 고단당하는 법을 배우라.

이창우 목사(키에르케고어 <스스로 판단하라>, <자기 시험을 위하여> 역자, <창조의 선물> 저자)

송태훈 칼럼

모세의 후처 구스 여인과 미리암의 암투

성경 최초 여(女)선지자 미리암



송태훈 목사

주전 16세기 아론과 모세의 친절한 누이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선지자 미리암은 레위 지파 소속 아르람과 요게벳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남편은 출애굽 이후 첫번째 전투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왼팔로 활동한 유다 지파 소속 장로, 홀로 추정된다. 홀은 아론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활약한 것처럼, 모세를 최측근에서 보좌한 최고 정치지도자였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4대 족장인 요셉의 공적을 잊어버린 이집트 18왕조 제2대 황제인 아멘호텝 1세(주전 1546-1526) 치하에 태어나 악독한 투트모세 1-3세 황제들의 통치를 거쳤다. 주전 1446년 출애굽 당시 황제인 아멘호텝 2세의 철권통치까지 경험한 불운(?)의 여인이었다.

주전 1526년경 이집트 황제 투트모세 1세의 명령으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들이 나일강에 수장됐다. 미리암의 남동생도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에 넣어져 출생 3개월 만에 나일강 갈대 사이로 여행(?)을 떠났다. 미리암은 어머니 요청대로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나 멀리서 지켜봤다.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

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동생이 갓난 갈대 방주를 유심히 살폈다. 옛 조상 노아가 제작한 구원의 방주처럼 그 안에 탄 동생을 구해주도록 기도했다. 초라한 갈대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생명의 탄원 같은 비명을 들으면서, 그 비극의 현장에 전능자의 손이 강하게 나타날 것을 간구했다. 그때 이집트 황제의 딸, 하셉투스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며 거룩한 정결 의식을 수행하고 있었다. 요게벳과 미리암은 하셉투스 공주의 목욕 시간을 지난 3개월간 지세하게 관찰했을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요게벳과 미리암은 갈대상자가 목욕 장소에 도착하도록 방향을 잡아 띄워 보냈다. 갈대상자는 하셉투스가 목욕하는 장소에 예상대로 정확히 도착했고, 공주는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히브리 남자 아기를 발견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미리암은 하셉투스에게 나아가 히브리 아이를 위해 유모(사실은 모세의 생모 요게벳)를 추천했다. 그 아이가 친동생이라는 사실, 이집트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이나 몰래 집에 숨겨서 키운 사실을 알게 되면 미리암은 당장 죽을 수도 있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미리암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여호와와 이룸으로 담대히 나아갔다.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반대로 이집트 군대는 몰살당하게 됐다. 히브리인의 여성 지도자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춤추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진두 지휘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으로 다(출 15:20-21)'라고 목청 높여 찬양했다. 그날 밤 경이로운 축하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방향을 제시했다. 성경 기록상 최초의 여성 선지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성경 및 기독교 역사를 읽다 보면 공동체 지도자들은 대부분 큰 일을 앞두고 최측근들을 통해 부당한 비난과 위기를 경험하곤 한다. 모세에게도 그런 비난과 위기는 빚겨나가지 못했다. 지도자에 대한 비난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얼마 앞둔 시점에 발생했다.

성경은 모세의 아내 심보라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 침묵한다. 심보라가 죽은 이후 모세는 어느 시점에 구스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취했다. 공동체의 실제로 있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재혼을 이슈로 삼아 크게 분노하며, 지도자를 비난했다. 중요한 직분을 가졌거나 교회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탈선하는 것처럼, 미리암도 영적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사역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 하셨느냐' 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에게도 모세의 영권(靈權)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리암은 모세의 두번째 아내, 구스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구스 여인의 거무스름한 피부색이 미리암에게 분노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미리암이 피부색을 문제삼아 모세를 그토록 혐악하게 공격했을 리는 없다. 아마도 구스 여인이 히브리인 공동체의 안방마님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친 데 대한 반발이었을 것이다. 구스 여인은 첫번째 아내 심보라와는 다르게 모세의 사역에 직접 개입해서 안방마님 역할을 감당했다. 미리암이 지닌 권한의 폭이 예전보다 크게 축소됐다. 공동체 내의 권력축소 및 영향력 상실에 대한 불만이 급기야 지도자 모세의 재혼을 정면으로 비난하게 만들었다. 조용한 내조의 여왕, 심보라가 살아있을 때는 히브리 공동체 내 여성에 관한 모든 권한이 미리암에게 있었다. 구스 여인이 안방마님으로 들어오면서 미리암이 갖던 특권과 권위가 그녀에게로 전격 이동됐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 높은 위치를 갖게 되자 교만해졌고, 영안이 어두워지게 됐다. 주전 16세기에 미리암은 인간 바벨탑을 쌓게 됐던 것이다. 미리암은 주전 16세기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에 걸렸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문둥병은 치료됐지만, 7일간 진 밖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다. 영적 교만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지도

자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민 12:1-16).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고 있을 때에 사막에서 조용히 죽게 됐다(민 20:1).

돈과 지위로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교만한 사람을 우리는 가끔 만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욱 신뢰하며, 자신을 공동체의 정점에 두곤 한다. 미리암처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문둥병같은 징계와 멸망만이 남아있다. 차라리 돈과 권력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느껴지는 교만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공동체 속에 존재한다. 21세기 불행한 미리암이 되어 고통의 삶을 살기 전에 회개하고 낮아져야 한다. 아무리 유능해도 인간은 하늘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은혜 한 장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30

By faith the walls of Jericho fell,
after the people had marched
around them for seven days.

Hebrews 11:30

基督日報
www.cdaily.co.kr

SKIN ECOLOGY ESSENCE & CREAM

피부 생태학자가 선물하는 진정한 피부 휴식

ROFAPROPHE BIO COSMETIC

-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 SCIE급 논문 등재 큰얼매 모자반 성분 함유
- 10가지 천연성분 레시피 함유
- 피부 무 자극 테스트 완료
- 4,240번의 실험과 연구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신앙과 가정 지금은 기도할 때

기독교 역사상, 언제가 기도할 때가 아닌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자다가 깬 때가 되었다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 하라고 하였으며,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 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역사를 이 루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반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즉,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루어가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동참을 요구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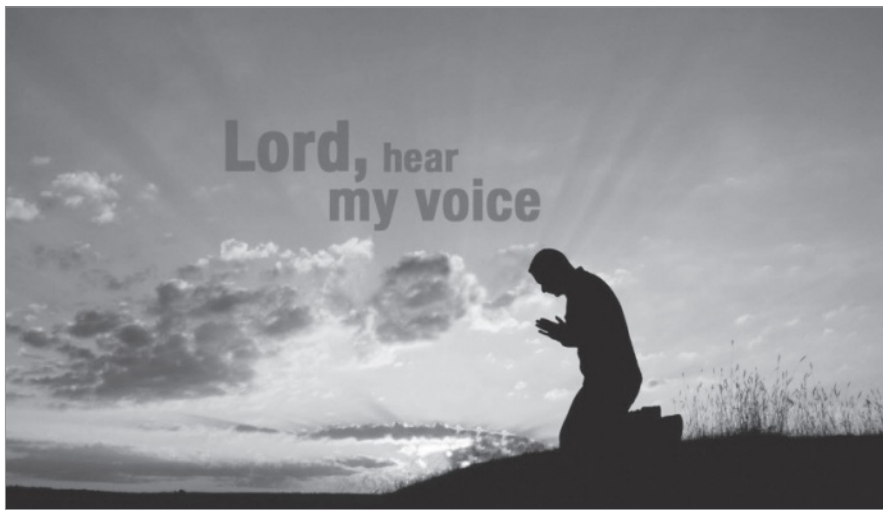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미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그 영광에 동참할 기회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동

참할 기회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은 힘들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은 아닙니다. 기도는 편할 때 쉬었다가 어려울 때 불 지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이, 숨 쉬는 것과 같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 같은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전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열



어주셔서 우리로 그 영광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기록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비판

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알았지만, 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위대하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의 보화를 캐는 연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시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시대를 분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위험한

땅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로 이곳과 세계 열방에 영적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 발전소가 되는 것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던 말씀(엡6:18/개역)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1세기에 로마를 점령했던 복음이, 우리들의 기도로 세계 관광의 중심지라는 이곳 이곳도 점령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에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 은혜를 날마다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시 복음과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 우리 주변이 기도하는 능력자들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성경상식

바리새인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신과 율법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예수는 몇 차례나 그들을 꾸짖으면서 '위선자들'이라고 불렀다. 예수는 규칙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웃과 신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한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비판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바리새인들은 식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 안식일에 할 행동 등 세세한 문제를 고리타분하게 따지고 들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보다 정의로워야 한다고 가르쳤다(마태복음 5:20). 즉 율법을 고수하기보다 사랑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가 바리새인의 일곱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는 또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마태복음 23:3).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판하고(마태복음 9:11), 사탄에게 의지해 귀신들을 쫓아내는 힘을 가졌다고 주장했다(마태복음 9:34).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하는데(누가복음 16:14), 이 대목에는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라). 세례자 요한은 바리새인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 그레도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함께했다(누가복음 14).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헛웃이 그를 죽이려 한다고 경고하면서 피신을 권유하기도 했다(누가복음 13:31).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온다. 그는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거듭날' 필요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대다수 바리새인들은 사제들의 회유를 받아 예수의 처형을 지지했다.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으나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다가 개종한 뒤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교 진도사가 되었다.

신약성서에 수록된 그의 몇 가지 서신들을 보면 그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얼마나 배격했는지 알 수 있다. '바리새'라는 말은 대략 '초연한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원래는 신앙심이 독실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예수가 그들이 독선적이라고 자주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의 의미도 달라졌다. 들녘 출판사 제공

교회오빠

넓은 길과 좁은 길

어느 대학 교수가 졸업생들에게 세상은 망망대해와 같아서 자칫하면 실패하게 되니 조심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학생이 "저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파선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곧 나를 영위한 길로 인도할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방황치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길이 좁은 길이지만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수 없이 많이 뻗어 나가 있지만 인생에는 오직 두길 넓은 길과 좁은 길, 즉 사랑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의 선택권은 내게 즉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앙 생활 하다가 방황하십니까? 믿음의 길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잃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교회로 울라 오십시오. 그리하여 이곳에서 다시 길을 찾아 떠나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몰라서 못갑니까?

누구나 다 알지만 결단이 안되고 육신이 약해서 못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이 길을 사랑하십시오. 힘이 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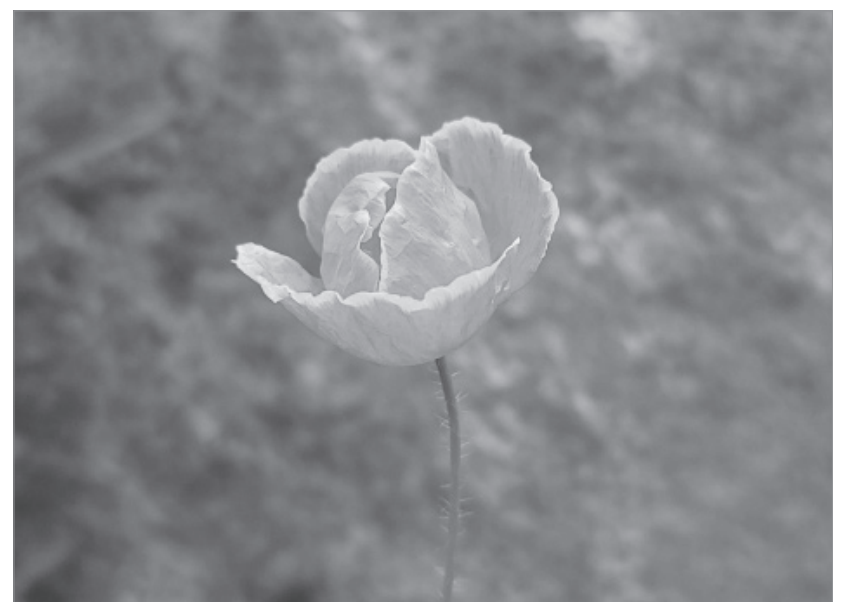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시편37장 5절-6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공의를 정요의 빛 같이 하사리로다" 아멘 창골산 봉독사

향유옥합

깨달음 중의 깨달음



깨달음 중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첫째는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다. 나도 너도 세상도!

둘째는 죄가 보이는 것이다. 너의 죄와 세상의 죄도 보이나 우선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다.

셋째는 멸망도 죄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깨달음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일뿐 구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한의 가슴으로 바다를 볼 뿐!

이때에 우리는 비로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다.

산마루서신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찬양은 보고, 듣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웃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김남수 교수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와 말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함 사랍이여 입술이 부정함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 그 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절가 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거하였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1:8)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학이 정통이라 주장하여 여러 교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찬양은 신학의 이념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표현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된다면, 우리의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그 예배와 찬양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를 ‘본다, 드린다, 한다’라는 차이 가운데 예배 개념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보는 것도 필요하고, 드리는 것도, 행하는 것도 중요한 전 인격적인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쓰인 ‘보인 것’은 육체적 눈으로 보는 것, 보는 것을 통해 이성적으로 아는 것, 보는 것이 바탕이 된 경험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어다” 시 34:8-9 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찬양하는 찬양대가 노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현대의 속성은 ‘앞아서 보는 것’ sit and see입니다. 그냥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들은 책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수와 칠판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찬양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만 보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 61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사야가 바라본, 아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바라보아야 합니다.

루이스는 찬양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그분이 행하신 행적을 찬양 가운데 발견해야 합니다.

저에게 이런 예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부활 주일 아침 예배의 목도송으로 찬송가 (무답에 머물라)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감격! 이른 아침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를 노래할 때는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 된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찬양은 듣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듣고 노래한다는 것은 쌍방통행을 의

미합니다. 듣지만 한다면, 듣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일방통행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제 말만 하더니, 사춘기를 보내며 ‘대화불가’를 선언하고 듣지만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찬양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의의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3 라고 외치는 스랍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스랍들의 찬양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함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 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불완전한 우리는 완전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며 우리는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

지만, 우리는 강건해도 팔십이라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찬양을 통해 듣고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대는 입을 통해 심령으로 노래하지만, 회중은 귀로 들음으로써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잃어버린 백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위에 놓인 것처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이스라엘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같

은 제사장의 사명은 물론이고,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 찬양으로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찬양대원일 뿐만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고, 회중을 격려하고, 선포하고, 그들의 영과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물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부르실 때 이사야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 김남수 교수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음악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와 신탄진침례교회 음악목사(역임),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로서 섬기고 있다. 제45회 신인음악회(조선일보)로 데뷔하여, 21회 동아콩쿠르 입상, 18회 난파음악제 우수상, 18-19회 서울음악제에 연속으로 당선했으며, 대전광역시로부터 위촉을 받아 국악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大田詩曲”(2001)을 발표했고, 합창곡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2002)을 출간했으며, Southern Seminary로부터 “Distinguished Composition Award(2003)”를 받았다.

음악 표현의 테크닉을 알려주세요



김준희

Q.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테크닉들 외에 ‘표현을 위한 테크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음악적인 표현’이라 함은 아티스틱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음의 선명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어떤 터치로 연주할 것인가, 각 성부의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등의 전반적인 음악적 해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음악적 표현은, 1. 신체적 어느 부분을 사용하여 연주하는지 손가락만 사용하는지 손목, 팔 혹은 상반신 등을 사용하는지 2. 건반을 칠 때 손가락과 손목의 방향은 어떠한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지 안쪽에서부

터 바깥쪽으로 향하는지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향하는지 혹은 손목 움직임 여부 3. 건반을 치는 속도는 어떠한지 타건은 어떠한지 4. 준비 중인 손가락과 건반 표면 사이의 높이는 어떠한지 5. 손끝으로 보내지는 힘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지 6. 페달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7. 독립적이면서도 유연한 손가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Q. 그렇다면 음악적 표현을 위한 테크닉은 연주자가 각 음의 미묘한 차이를 분별해서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반주자들은 악보를 보면 ‘그 악보대로’ 피아노를 칩니다. 그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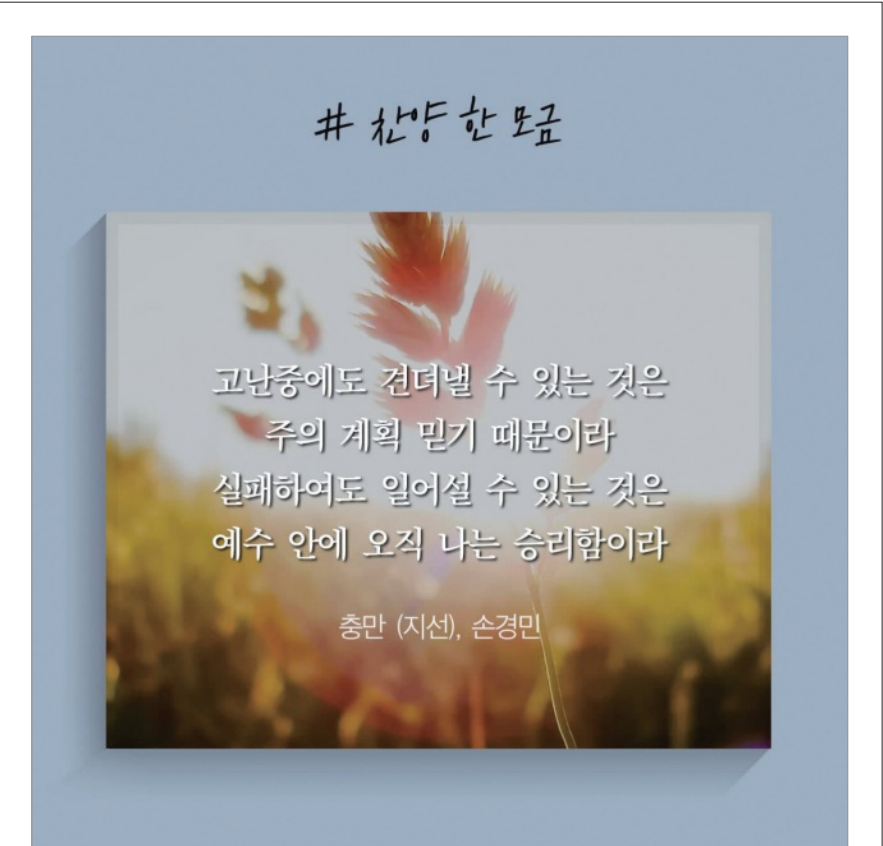
지만 ‘그 악보대로 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 어떤 이들은 박자와 음정을 지켜서 치는 것을 악보대로 쳤다고 생각합니다. 2. 어떤 이들은 악보에 나와 있는 각종 부호와 나타냄말을 지켜서 치는 것을 악보대로 쳤다고 생각합니다. 3. 어떤 이들은 악보에 아무런 나타냄말과 페달 표시 등이 나와 있지 않아도 음악을 잘 표현할 줄 압니다. 3과 같은 부류의 반주자들은 ‘음악을 표현하는 테크닉이 숙달되어 있는 피아니스트들입니다. 2와 같은 부류의 반주자

◆ 김준희 교수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음대 졸업 후 도미하여 시러큐스 대학원에서 피아노 석사를, 피바디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오르간, 하프시코드로 석사 후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백석 예술대학교 음악 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들 중 각종 부호와 나타냄말을 잘 표현해서 연주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터치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음색과 음향 등에 대해서 무심경하다면 그것은 마치 성악을 하는 사람이 포르테라고 해서 무조건 큰 소리로만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악가가 발생법을 공부하듯 피아니스트들도 팔, 손목, 손가락 등을 포함한 자신의 몸과 악기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연주할 수 있도록 ‘피아노 발생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음과 박자만 따로 떼어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습관을 버리고 ‘음악과 함께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손가락 훈련에 주력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것이 주된 연습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CTS, '콜링갓' 2000회 맞아 특집방송 진행

오는 19일 오후 2시·
밤 12시 방송 예정

CTS의 인기 프로그램 '콜링갓'이 2000회를 맞아 11일 특집방송 녹화를 진행했다. 안중호 목사, 최윤영 아나운서가 진행한 이날 방송에는 400여 명의 성도들이 CTS아트홀을 가득 메웠다.

콜링갓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중보기도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온 CTS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쏟아지는 기도제목들은 CTS기도센터에 접수되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기도센터의 사역자들이 전심으로 중보 기도한다.

그동안 '콜링갓'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이 치유되었고, 무속인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등 '현대판 성령행전'이라고 불릴만큼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다.

인사말을 전한 CTS 최현탁 사장은 "콜링갓 2000회를 통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매일 체험했다"며 "콜링갓을 통해 기도의 끈을 이어가 세계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CTS아트홀에서 진행된 콜링갓 2000회 특집방송 녹화 사진. ©CTS



콜링갓의 중보기도로 치유를 경험한 권기덕 집사. ©CTS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콜링갓 2000회 특집방송은 콜링갓 연합찬양팀의 감사찬양을 시작으로, 현 콜링갓 진행자인 김원철 목사, 김대성 목사, 백용현 목사, 차영아 목사가 함께했다.

오산리기도원을 40년째 섬기며 콜링갓을 진행하고 있는 김원철 목사는 "누워 있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애끓는 기도,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걸려온 긴급한 전화를 마주하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갑작한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했다.

또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는 "5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지만 콜링갓 방송을 통해 매주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한다"며

"암과 불치병을 치유 받았다는 기도응답을 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10개의 기도원을 이끌며 순례기도 사역을 펼치고 있는 김대성 목사는 "콜링갓을 통한 기도사역은 시청자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한 영적 생명줄"이라며 "콜링갓을 통해 더 많은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는 "콜링갓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은 영혼들을 마주할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해주시는 기도센터 사역자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특집방송에는 시각 장애인도 교회 반주자로 섬기던 권기덕 집사가 최근

양손 통증으로 반주 봉사를 이어가지 못해 '콜링갓'에 기도요청을 했으며, 방송 이후 CTS기도센터와 시청자의 중보기도로 치유를 경험한 권기덕 집사는 녹화 현장에 나와 은혜의 경험을 나누고 직접 기타연주와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다. CTS 콜링갓 연출을 맡고 있는 박성진 사시는 "매일 생방송으로 성도님들과 영적 호흡을 이어감에 감사하다"며 "고통받는 이웃들과 위도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콜링갓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님을 부르세요! CTS 콜링갓'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2000회 특집방송은 오는 19일(금) 오후 2시와 밤 12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팝페라 여왕 이사벨, SNO 창단 30주년 콘서트 특별출연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SNO)가 창단 30주년을 맞이하여 내달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팝페라 아티스트 이사벨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다. 이사벨은 지난 2월,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의 문화예술봉사 분야에 인재로 영입되어 주목을 받았다.



팝페라 아티스트 이사벨 사진. ©(주)벨리버스

이사벨은 '마이 에덴(My Eden)'으로 유명한데,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후 2007년 귀국하여 팝페라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에 힘썼다. 특히, 구세군 자선냄비에서 재능 기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거리의 천사'로 불렸으며, 애국가를 가장 많이 부른 가수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콘서트는 '30년의 따뜻한 동행! 50년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사벨이 오페라 '나비부인의 아리아' 'Un bel di vedremo (어느 개인 날)'과 최영실 작곡가의 '그리운 금강' 등을 선곡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동진 단장이 이끄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이 진행된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

스트라가 주최하고 워너스기획이 주관하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지원과 이레 MMC, S&C GLOBAL GROUP, 아티스트데일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KBIZ문화경영위원회, 뉴데일리의 후원으로 열린다.

한편, 앞서 이사벨은 국회에서 가진 인제영입 기자회견에서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우리 사회 낮은 곳을 위한 봉사와 치유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사벨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중심이 되겠다"며 "모든 예술인들이 법과 제도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실고 The올림 30 TV강단 삼일(송태근)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복음강단 - 포항송영교회 송병렬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 30 생명의 말씀-황용식 목사(신애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50 하용조 목사의 사랑	00 생명의 양식 대한(오영민)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큐티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선교는 지금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김서택 목사(대구동부교회) 50 생명의 말씀-김현배 목사(광명교회)	20 말씀의 생터 춘천사랑의교회 윤대영 목사 50 말씀의 생터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30 이병욱 박사의 양을 이기는 건강 바이블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	3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스스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워킹온더바이블] 성경의 땅 50 CTS아침찬양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매일 주와 함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	00 말씀의 창 - 성경교회 유관재 목사 30 비전메시지 - 새밀교회 김용일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Miracle Moment	50 낮은 곳으로 올라가는 희망의 종소리	00 [말씀] 반태효 목사(남주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문개혁신서	00 성지가 좋다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스스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0:00	00 CTS 특집다큐 5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00 말씀의 생터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 30 말씀의 생터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오후	11:00	40 말씀노트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비전설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00 [말씀] 황성은 목사(장동영광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이병욱 박사의 양을 이기는 건강 바이블	00 맞나는 교회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성찬의 소리 -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12:00	3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00 말씀의 생터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30 말씀의 생터 하늘교회 신영대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0 파워인터뷰 30 세상을 보는 창	20 비전메시지 - 포도원교회 김문준 목사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부 미라클 30 신앙예배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생터 임마누엘교회 전담양 목사 30 오 지유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2023 KGMIF	00 풀포원	00 힐링톡 회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스스 구약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30 GOODTV 진리의 시간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김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00 말씀의 힘 광석(김동찬) 30 CBS 아카데미 숲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5:00	4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다꿈	0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신통증양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 산위의 마을(김영준) 3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00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록 30 성지가 좋다
	16:00	30 생명의 말씀-정경덕 목사(분당가나안교회)	00 비전설교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 50 TV강단 순복음원당(고경환)	00 내 삶의 행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스스
17:00	00 생명의 말씀-전태석 목사(서울진주초대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GOODTV스페셜 로드여행 이경의 걷다보면	30 [말씀] 최경욱 목사(포감사신교회)	40 크리스찬칼럼 중앙성결(한기재) 50 오직 주님만 솔로	00 선교는 지금 50 비전메시지 - 수원연혜교회 황유서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의교회) 30 Miracle Moment 40 CTS 특강	00 행복플러스 30 헤세드워십 50 더 메시지	10 레디온 5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30 TV강단 김포좋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저녁	19:00	30 위대한 유산	00 말씀의 생터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심소)2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동승(주학선)	00 비전메시지 - 전주산들교회 김진영 목사 30 복음강단 -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20 생명의 말씀-김정민 목사(금관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비전설교 혜성교회 정영호 목사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연 기도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비전메시지 -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 The Life 지구초교회 김민환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리바이츠 헤리티지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 50 CBS 뉴스	10 나의 십자가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10 워킹온더바이블 성경의 땅 30 다나연 기도회	40 말씀의 생터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10 새문개혁신서	00 예수실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스스 구약
	23: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신앙예배	10 2023 다나연기도회	00 쟈센 프랭클린의 부흥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00 더 콜링 20 오늘 만나는 큐티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니까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살&가정] 기어코 성공해 내는 자녀들의 비밀	0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17회) 50 이 땅을 사랑한 예수님의 증인들	00 만나니
	1:00	00 하나님의 음성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구약)	0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강 30 말씀의 생터 새로운교회 한홍 목사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감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방의 찬양	00 명실고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30 말씀의 생터 주내림교회 김남국 목사	20 [말씀] 김형익 목사(별살롬교회)	30 TV강단 대연성결(임석웅)	00 만나 워십
3:00	00 다시보는 [CTS WEEK] 50 리바이츠 헤리티지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Craig Groeschel's Winning The War In Your Mind 3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맞나는 교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일교회 이견영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주새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 50 CBS 교회소식	00 C채널 명실고 다시 복음으로 - 만나교회 감병삼 목사 40 나의 십자가	



“해외 갈 때 아직도 현금 환전해?”



환전 수수료 없고

현금 들고다니기 불안한데

왜안 SOL?

써보면 왜 쓰는지 아는

SOL 트래블 체크카드

[유의사항] - 이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이며, 신한카드사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고객센터(1599-8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부탁드립니다. - 전월실적 및 혜택 상세기준 등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참조 - 혜택 1. 환전 100% 우대, 재환전 50% 우대 2. 국내 편의점 5% 및 우물교통 1% 할인, 국별 특화 가맹점 5% 할인(일본, 베트남, 미국) 3. 외화계좌 특별금리(연 USD 2.0%, 유로 1.5%)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4-11050-1호(2024.03.12~2025.03.11) *신한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312-Dprn-001호(2024.03.12~2025.03.11)